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2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일산성석지점 거래고객
(주)문인테크 정도영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 거래고객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이윤신 이사장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이니까 유연도 믿고 맡깁니다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과 기업 곁을 지켜 온

IBK기업은행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알기에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유산까지
맡기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상속으로 내 뜻을 지켜주는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믿을 수 있는 국책은행

63년 역사의 국책은행으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약관리



내뜻대로 상속설계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간편한 신탁계약

형식이 엄격한 유언장 대신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사 효과



안정적인 상속집행

신탁 전문가와 함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속 집행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979호(2024.10.15) 유효기간(2025.10.1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197호(2024.10.16~2025.10.15) ※자세한 문의를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p>04</p> 	<p>04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동명카츠 사장님 감사합니다’ 외</p>
<p>72</p> 	<p>12 이달의 편지 ‘냄새의 의미’ 외</p> <p>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문인테크 정도영 대표</p>
<p>76</p> 	<p>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이윤신 이사장</p> <p>80 코너 속 편지 ‘꿈 같은 사람’ 외</p> <p>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처음 가는 길</p> <p>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겨울 이야기</p>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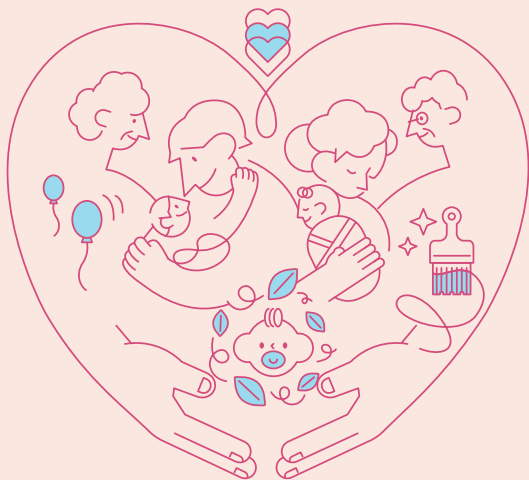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 **발행인** (취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명카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애청자

저는 며칠 전에 불의의 사고로 집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대견할 정도로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처럼 힘들게 생활하고 있겠지요. 작은아이는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어떤 여자 분이 무언가를 놓고 계단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 돈까스였습니다. 작은아이가 ‘동명카츠 사장님 같다’고 하더군요.

“거기 사장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 하고 물으니 애들 엄마 발인 날 영정사진을 들고 아파트에 올 때 사장님이 보시고 어인 일인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애길 듣고 저희 집에 돈까스를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사장님께 뭐라고 감사인사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글로 인사드립니다.

“군포 송정의 동명카츠 사장님, 저희 세 식구 그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 식구 힘내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연

고재영 |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

전에 여성시대에 사연 보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희 빵집에서는 손님들이 헌혈증을 가게로 가져오면 식빵으로 교환해 드린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 직장 선배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너무 안타까워서 헌혈증을 모아드릴 방법을 찾다가 손님이 헌혈증을 가져오면 인기 있는 식빵과 바꿔드렸습니다. 6개월 뒤에는 선배님께 헌혈증을 보내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백혈병을 이겨내고 완치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며 필요한 분들에게 헌혈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새로운 인연을 열 분이나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2024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대회’ 행사가 열렸거든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1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스토리를 170여 관객과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센터 손영규 대리님의 지휘 아래 예선을 통과한 10명은 발표하기 전에 우황청심환도 나눠 먹고 산책도 하고 대본도 외우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점심 도시락을 먹고 관객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 제 손목에 찬 위치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올라갔으니 관리하라는 진동이 울릴 정도였죠.

드디어 발표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파주시에서 오신 백춘숙 여원봉사회 회장님이 발표하셨는데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에 힘들게 정착한 후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남북한의 화합을 꿈꾸는 이야기, 또 북에 두고 온 아들 성철이를 만나고 싶은 소망도 들려주

셨습니다.

구리시에서 오신 효정평화봉사단 사또요시에님은 한국에 시집 온 일본 이주여성으로 문화 차이와 편견을 극복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유대감을 쌓고 국경을 넘는 나눔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화성시에서 오신 강기원님은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배, 전등 교체, 리어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셨습니다.

'꽃으로 핀 대리기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윤한옥 동두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던 부모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수원시에서 오신 임미정님은 '사랑하는 나의 털 복숭이 친구들에게'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애완고양이 호스피스 경묘당에서 나이든 고양이를 돌보며 환경 문제와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오신 장태기님은 시각장애 축구의 가이드로 믿음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선수들과 함께하며 승리를 이끈 경험을 전해주셨습니다. 진정한 팀워크는 서로 믿고 함께 행동할 때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 순서는 일곱 번째로 '자원봉사는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징검다

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봉사 활동은 작은 징검돌과 같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개천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헌혈증 모으는 이야기, 배고픈 누군가를 위해 미리 돈을 조금 기부하는 ‘미리내 가게’ 이야기. 그리고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활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광주시 손성민 님은 네 아이의 엄마로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을 실천하며 엄마들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나누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발표하셨습니다.

최창환 성남시 자율방범 은행 1지대 대장님은 30년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구리시에서 오신 남상화 님은 ‘나 길거리 캐스팅 받은 여자야라는 제목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제는 봉사로 사람을 캐스팅하는 사람이 된 과정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열 분의 다양한 인연을 새로 만났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오신 분, 네 아이의 엄마, 처음 들어보는 고양이 호스피스에서 봉사하시는 분, 시각장애인 곁을 지키시는 분, 저와 같이 방법활동하시는 분 등 봉사가 일상이신 분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당당이님들도 혹시 자원봉사 권유를 받으면 기꺼이 동참해주시고 애완동물도 길에 버리지 마시고 귀가 길에 방법대원들 만나거든 따뜻한 인사도 건네주시고 혹시 헌혈증이 있으면 저희 빵집으로 보내주세요.

엄마의 단풍 구경

신순용 | 울산광역시 남구

며칠 전 오빠와 같이 살고 계신 엄마가 설악산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고는 주말에 보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오빠는 엄마 휠체어를 챙겨서 부모님 모시고 단양을 떠나 양양까지 달렸답니다. 예쁘게 물든 단풍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며 달렸대요.

점심때 두 분이 좋아하시는 물메기탕을 맛집에서 드시고 계산하려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어머님이 저희 엄마랑 너무 비슷하세요. 잘 드시는 모습이며 웃는 모습, 휠체어 타신 모습까지 저희 엄마랑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그리고는 오빠가 “엄마를 너무 잘 보살피는 모습에 엄마 생각이 났다”면서 오빠네 식사 값을 계산해주고 가셨다지 뭐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오빠가 인사라도 드리려고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그 손님 일행은 떠나고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오빠랑 단풍 구경 잘하고 왔어?” 안부전화를 드리니 엄마는 “그럼~ 구경도 잘하고 바람도 쐬고 점심도 잘 먹고 돌아왔는데 그 점심 값 내준 손님한테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드네.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하며 계속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요. 인사는 제가 드릴게요” 했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양양 물메기탕 식당에서 휠체어 타시고 머리 하얗고 이가 없어 하회탈처럼 웃으시는 할머니랑 지팡이 짚으신 할아버지, 모자 쓰고 안경 쓴 아들 이렇게 세 식구 점심 값 계산해주고 떠나신 손님~ 저희 엄마가 진짜 감사하답니다. 저도 마음이 내키는 가족을 만나면 꼭 좋은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정순자] 저는 71세 할머니인데 웃음치료사 자격증 시도해 보려 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웃음 많이 얻어 가고 있는데 이웃들과 행복감 나누고 싶어서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응원해 주세요.

[6746] 전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회사 퇴근 후에 드럼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아내는 저녁밥 먹고 손가락 집어 던지고 학원으로 가는 저를 못마땅해하지만 드럼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다만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멘붕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도전해 보렵니다. 파이팅!



[5734] 저는 늦은 나이에 꿈이 생겼는데요, 한복 만드는 일을 꼭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도 하고 이 나이에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이 나이에 못하는 건 키즈 모델 말고는 없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저의 꿈도 당당이님들의 꿈도 모두 모두 응원합니다.



[4134] 저는 드라마 촬영 카메라 장비를 1톤 리프트 탑차에 싣고 다니는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장비 내려주고 12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산책도 하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주변 등산도 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여성시대가 응원해 주세요.

생방송 중 도착한 문자 모음입니다.



- 12 냄새의 의미
- 15경단녀의 첫 월급
- 18여성시대가 맺어준 인연
- 23K-리그 직관러 가족
- 26이름 속에 지붕이 있어요
- 29아내는 통장님
- 32당당하기
- 36지금은 덕질 시대
- 40시어머니의 언어
- 43가족이라는 이름으로
- 46그 그릇 세트
- 51책에 대하여
- 54구순 아버지의 고백
- 57왜 딸과 싸웠는지
- 59나의 생활통지표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냄새의 의미

권승화 | 전남 무안군

요 사이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웬지 외롭고 쓸쓸하다. 자식은 다 전사하고 늙은 부부만 남았다. 자식은 세상 살기가 바쁘지 연락도 잘되지 않는다. 그렇다! 점점 각박해지는 힘든 일상을 버티는 그들에게 무어라 탓할 필요는 없다.

남편은 퇴직하고도 부지런히 친구를 만나고 다닌다. 젊었을 적에는 남편이 밤마다 회식을 다녀와 술 냄새와 땀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어도 고단하고 힘든 직장생활이겠거니 자위하면서 냄새에 대해 그렇게 민감히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오는 갱년기인지 요사이에는 술 냄새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싫다. 남편에게 자주 지적을 하지만 못 들은 척한다. 내가 이런 이분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세월의 간격이 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남편을 이해하자고 매번 다짐하지만 잘 안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 인근 야트막한 산을 찾는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올라가면 길가에 편백나무가 우거져 있다. 나무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내 마음을 달콤하게 만져준다. 한 십여 분 올라가면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면 솔향이 내 폐부를 청소해 주는 것 같다. 한가로움과 쓸쓸함에 젖어 든다. 세상에 대한 서운함이 없어진다. 산에서 내려와 미지근한 물에 몸을 씻고 좋아하는 보습제를 바르면 내게서 향긋한 냄새가 난다.

오후 무렵, 남편이 커피를 한잔하고 싶다고 한다. 커피 원두를 그라

인더에 넣은 후 수제로 된 분쇄기에 넣고 간다. 그리고 끓은 물에 커피를 내린다. 고소하고 짙은 커피 향이 온 집안을 휘감는다. 남편은 뭐든 급하게 마신다. 커피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는 나와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모든 것이 맞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 어떻게든 맞추고 살아야 한다.

저녁 반찬을 사러 마트에 들르면 생선 냄새, 과일 냄새, 따스한 빵 냄새가 코를 마비시킨다. 온통 냄새의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 좋은 냄새는 좋은 생각이 들게 하고 나쁜 냄새는 기분을 지저분하게 만든다.

눈으로 보는 세상도 다름이 있지만 후각으로 느끼는 이 냄새들도 다름이 많이 존재한다. 수많은 물질이 간직한 고유의 냄새가 다 다르듯 이제는 타인들을 인정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바쁜 세상에 주위도 둘러볼 새 없이 냄새에 대한 느낌도 모르고 산 세월이 오래되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냄새에 취하고 느끼고 사색하면서 지내야 한다. 지나온 아픈 기억들, 그것들이 떠오르는 냄새들은 잊고 이제 향내 나는 냄새만 맡으며 살아가려 한다.

사람은 모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냄새가 있다. 어떤 이는 악취를 풍기고 어떤 이는 단내를 풍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냄새들이다. 과연 나한테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좋은 향내가 나면 좋으려면 아마도 나의 이기적인 사고는 그리 좋은 냄새를 가지지 못할 거란 자조를 한다.

그러나 그건 다 내 몫이다. 누구나 자신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오후 찬란한 햇빛도 힘없이 사그라지려고 한다. 과연 황혼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모든 것이 궁금하다.

Letter 02

경단녀의 첫 월급

민진희 | 경기도 광명시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 차 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15년 전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무렵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인즉슨, '나는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겠다. 그러니 맞벌이를 원하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였죠.

그 무렵 저는 10년이 넘는 사회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 일도 좀 쉬고 싶었고 연애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친구의 설득에 넘어가 덜컥 소개를 받았고 두세 번 만나다 보니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 만나다가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일을 안 하겠다 하면 당연히 날 싫다 하겠지 하고 호기롭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돌한 제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설마 진짜 일을 안

할까 싶었는지 “평생 일 안 해도 된다~ 내 옆에만 있어 주면 된다~” 하며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거기에 넘어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저는 심한 입덧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정신없이 육아에 전념하며 흐른 시간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 육아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여유가 생기고 나니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이 문득문득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고 싶기도 했고 남편 혼자 버는 생활비가 좀 빠듯하다고 느꼈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찾으려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신 일하려고? 평생 일 안 한다며? 그리고 당신을 누가 써주겠어. 결혼하고 일 안 한 지 15년이나 됐는데!”라며 저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속으로는 ‘전업주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속도 상하고 기운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고 능력을 인정받던 직장인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평생 일을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급한 거 아니니 차근차근 찾아보자’ 하며 자신을 다독였고 결국 몇 군데의 일자리를 찾아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다행히 그중 한 군데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일 안 한다더니 웬일이야~” 부터 시작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자기 용돈이나 써~ 근데 잘할 수 있겠어?”라면서 어찌나 옆에서 말이 많은지.

저는 남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르바이트를 나갔고 그러면서 집안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일한지 한 달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첫 월급 받고 부모님께 내복 사드렸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결혼 후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 대신 시부모님께 한약 한 제라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제게 언제나 든든한 친정 처럼 힘이 되어주신 시부모님. 사계절 내내 농사짓고 저희 부부 나눠 주느라 허리가 굽은 줄도 모르고 일하시는 시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부모님께 월급의 반을 쓰고 나머지 반으로는 우리 가족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외식도 하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큰소리치며 용돈도 주었습니다.

알바비 받아 봤자 얼마나 되겠냐며 당신 용돈이나 쓰라고 얘기했던 남편은 “고마워~ 당신이 부모님께 그렇게 큰마음을 가졌는지 몰랐어. 앞으로 내가 더 응원할게”라며 미안한 듯 멧쩍은 웃음을 짓더라고요.

제가 번 돈이 큰돈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쓰고 나니 이보다 더 의미 있게 쓸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엔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온전히 저를 위해서 써야겠어요. 당당이 여러분~ 저 그럴 자격 충분히 있죠?

Letter 03

여성시대가 맺어준 인연

강봉순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저는 경남 김해에서 두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일요일인 어제는 저와 아내 그리고 직장 때문에 객지 생활을 하는 두 아들과 함께 서울에 계시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해 사는 저희 가족한테 서울에 계신 귀한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서울을 한 번도 못 가본 학생 손을 들어보라'는 선생님 말씀에 손을 들었더니 글썽 우리 집 막둥이 혼자였다면서 우리도 서울 구경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중학교 1학년 큰아들도 서울 구경 한번 못 해봤다 하고 그 옆에 있던 아내도 여태껏 서울에 한번도 못 가봤다 하더군요. 저 역시 서울이란 곳은 경기도 파주에서 군

생활할 때 휴가 나와서 스치듯 지나쳤던 게 전부였던지라 두 아들과 아내에게 “그래 이번 겨울방학 때 서울 구경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 가려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서울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다 보니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경비는 준비되어 있으니 김해 촌놈들 서울 구경 가도록 스케줄 좀 짜 달라고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냈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2008년 11월 27일 제 사연이 여성시대에 소개됐고 많은 분이 저희 가족이 여행하면 좋을 만한 곳과 맛집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양희은 님과 강석우 님께서 진행하실 때였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여성시대에 소개된 제 사연을 듣고 저희 가족에게 2박 3일간 서울 구경을 시켜주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여성시대 작가 님과 서울 구경을 시켜주시겠다는 그분의 전화를 받고 남에게 신세를 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매일 몇 번이고 저에게 전화해서 부탁하듯 말씀하시고 저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고 뭔가 상황이 뒤바뀐 것처럼 되었던걸요.

그분은 정히 그러면 두 아들만이라도 서울로 보내라 하셨고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그분의 초청을 받아 우리 네 가족 모두 꿈에서만 그리던 2박 3일간의 서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이고 이름난 맛집들 그리고 두 아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동산 등 하나에서 열까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신경 써주신 모든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를 아들과 딸처럼 그리고 친손자처럼 귀여워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2박 3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저희 가족은 단 하루도 그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구경을 시켜 주신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를 마치 가족처럼 품어주신 그 넉넉하고 따뜻한 품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가족 그 이상의 존재로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끔이나마 안부 전화를 드리면 항상 반갑게 받아주시는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몇 해 전, 중학교 1학년이었던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을 때도 마치 친손자가 취업한 것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작은 아들이 작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을 땐 소고기까지 사주면서 축하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시대의 힘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큰아들도 직장에 다니고 작은 아들도 서울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근무하다 보니 우리 부부도 서울 갈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지요. 서울에서 꽤 이름 있다는 중식당을 예약하고 두 아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로 스카프와 목도리를 준비하고 우리 부부도 한의사이신 원장 선생님의 병원에 드릴 찹쌀떡을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릴 요량으로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는데도 글썽 사모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의 20여 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모님도 우리 가족도 너무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다녔던 두 아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된 모습을 보신 사모



님께서는 마치 친손자를 만난 것처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
부에게 아이들 반듯하게 잘 키웠으니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을 아끼
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께 저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사모님의 역할도 너무 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여성시대에 사연 보낸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우리 네 식구와 사모님 이렇게 다섯 명이 옛 추억을 되살리며 즐겁
게 식사를 마치고 만남이 끝나갈 무렵 사모님께서는 봉투 하나를 꺼
내 큰아들한테 건네셨습니다. 돈봉투였습니다.

16년 전 중학교 1학년이던 큰아들이 오는 12월에 서울에 있는 아가씨랑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마치 친손자가 결혼하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축의금 봉투까지 건네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괜스레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드렸더니 사모님께서는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선물 받은 거 동네방네 자랑하시겠다고 찹쌀떡 사 드린 것도 너무 맛있다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걸 샀냐고 또 저희 가족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성시대 덕분에 맺어진 인연, 우리 가족에게 가족 그 이상인 그분들께 여성시대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남순 사모님! 사모님은 저희 가족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십니다.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얼른 쾌차하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도 서울 갈 일이 많아질 겁니다. 더 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데도 항상 검소하신 모습도 보기 좋고 매번 많이 배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손자처럼 저희 부부에게는 어머니처럼 늘 베풀어주고 대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핑 돌곤 합니다. 이남순 사모님! 사모님을 만난 건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시대가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etter 04

K-리그 직관러 가족

최수정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점 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 여기저기에서 한국 시리즈 이야기로 정신이 없다. 그렇다.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중에서는 프로야구의 인기가 그야말로 최고다. 나도 아가씨였을 때 친구들과 야구를 보러 다녔는데 참 재미있었다.

가끔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 야구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다. 신나는 음악 소리, 응원단장의 구호에 맞춰 재미있는 율동 응원을 하고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어서 열심히 선수 이름을 외치며 응원가를 부른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우리 팀 상대 팀 할 것 없이 어우러져 앉아 야구를 즐긴다. 중계 화면에서 보는 야구장은 늘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직관 다니는 프로축구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축구는 그라운드에서 공을 가지고 펼치는 전쟁이다. 야구는 시즌

중에 140경기 정도를 하지만 축구는 시즌 중에 38경기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 소모가 많고 거친 스포츠다.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은 공을 주고받고 뺏고 뺏기며 거친 태클과 치열한 몸싸움을 한다. 그래서 축구는 그라운드 안에서 펼쳐지는 전쟁인 것이다.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관중석에선 양 팀 서포터의 응원 전쟁이 펼쳐진다. 축구는 홈석과 원정석이 확실하게 나뉘어 있고 홈석에 원정팀 유니폼이나 굿즈를 착용하고 입장하거나 반대로 원정석에 홈팀 유니폼이나 굿즈를 착용하고 입장하면 이유 불문 바로 경기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응원단장도 없고 음악 소리도 없다. 응원단장 격인 ‘콜 리더’의 선창에 맞추어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노래하고 응원한다. 내 팀의 선수들에게 우리 팀의 응원 목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기 위해 양 팀은 서로 더 큰소리로 노래하고 응원한다. 화가 날 땐 상대팀에게 ‘안티 콜’도 하고 우리 선수들이 못 할 땐 우리 선수들에게 ‘안티 콜’도 한다.

이깟 공놀이가 뭐라고 우리 팀의 승패에 따라 일주일의 기분이 달라진다. 우리 팀이 이긴 날은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고 우리가 이긴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찾아본다. 하지만 우리 팀이 진 날은 일주일 내내 ‘다음 경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 고민만 한다. 내가 선수도 감독도 아닌데 말이다.

남편과 나 그리고 초등학교생인 우리 딸과 아들, 이렇게 우리 네 식구는 K-리그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가 응원하는 내 팀이 승리할 수 있게 큰소리로 노래해서 경기가 끝나면 네 식구가 모두 목이 쉴 정도다. 경기 결과에 따라 울고 웃고 그날의 기분도 왔다 갔다 한다.

우리 가족은 K-리그를 직관하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K-리그 시즌 중 주말에는 축구 직관 외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홈경기

야 집 근처니 당일에 경기 시간에 맞춰 다녀오지만 ‘원정 경기’는 우리에게 ‘원정 여행’이 되니 그것 또한 재미다. 원정경기 응원을 핑계로 전국에 다니며 여행하니 아이들도 우리 부부도 정말 만족스럽다.

울산 원정 갈 때는 아이들과 KTX도 타보고, 포항 원정 가서는 포스코박물관을 보고 호미곶에도 다녀왔다. 대구 원정 가서는 동성로 거리를 걸어보고, 전주 원정 가서는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비빔밥도 먹었다. 저 멀리 강원도 강릉 원정 갔을 때 경포대에 가서 가족 자전거도 타고 순두부도 먹고 왔다. 김천 원정 가서는 유명하다는 만둣집에서 만두 사려고 줄을 서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주 원정은 늘 가족여행 겸 3박 4일 정도로 다녀온다.

K-리그는 우리 가족에게 소중하고 재미있고 건강하고 건전한 취미다. 가족 모두가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다. K-리그는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되어 방안에만 콕 처박혀 있는 우리 딸과 대화할 수 있는 즐거운 소재가 되고, K-리그는 휴대폰 게임을 하는 우리 아들이 아빠와 나가서 축구도 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 K-리그를 너무도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응원하는 팀 순위가 지금은 저 밑 하위권이지만 우리 팀이 더 힘내서 이 잔인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 내년에는 꼭 저기 위쪽 순위에서 ‘행복 축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K-리그 상위 팀은 다음 해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데 우리 팀도 언젠가 꼭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서 우리 식구도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해외 원정 응원 여행도 가고 싶다.

Letter 05

이름 속에 지붕이 있어요

김경훈 | 서울 노원구

김 효숙. 빈 종이에 이름을 적어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속삭이듯 몇 번 이름을 불러보니 심장이 간질간질해지며 몸에서 열이 났다. 잠시 멍하니 암전되었다가 다시 집중해서 종이에 새겨진 이름을 보니 아니 글썽 ‘효숙’이란 이름 두 글자에 모두 지붕이 있었다. 나만의 엉터리 해석인 줄 알지만 ‘효’자는 모음 위에 자음 히음이라는 자음이 그래 보였고 ‘숙’자의 시옷도 지붕 모양 같았다.

이렇게 빈 종이에 엄마의 이름 석 자를 적어본 이유는 엄마가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였다. 궁금했다. 이 병이 더욱더 심해지면 엄마는 정말 ‘김효숙’이라는 이름 석 자도 기억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면서도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다시 처음 생각으로 돌아가서 엄마의 이름 속에 그려져 있는 이 지붕

들을 보면서 엄마가 들려주셨던 아픈 추억 속의 말들이 생각이 났다.

가난한 집안의 2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남의 집 화장실 청소와 집 청소 같은 허드렛일을 해가며 받은 푼돈으로 어린 두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큰 언니의 학비에 생활비까지 보태야 했던 엄마도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다고 했다.

중학생의 나이가 되었을 때쯤엔 목욕탕에 취직하여 목욕탕 청소와 때밀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목욕탕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월급을 타면 집에 들러 할머니 손에 다 들려드렸다고 한다. 그때 엄마는 그 어린 동생들이 눈에 밝혀 십 원짜리 한 장도 쓸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루는 목욕탕 손님의 지갑이 분실되어 목욕탕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훔쳤다고 누명을 쓰게 되어 너무 많이 맞아 실신했다고 했다. 결국 그 지갑은 분실이 아니라 지갑을 챙겨온 줄 알았던 아주머니의 착각이었음이 밝혀졌고 그 일로 목욕탕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오신 엄마는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중학생 나이와 고등학생 나이의 시절을 다 보내셨다는데 그 당시 평화시장 봉제 공장의 근무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었다고 했다. 점심은 굶기가 일쑤였고 새벽까지 밤새워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게 힘들었으면서도 당시 봉제 공장 사장님들도 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고,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시간이 흘러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고 어린 아들 역시 살가운 자식이 아니었다. 외롭고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면서도 한결같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늘



람과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분이셨다.

이미 시작돼 버린 엄마의 알츠하이머가 씻은 듯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아마 조금씩 더 심해질 거다. 그전에 엄마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다.

“엄마, 어머니~ 그 모질고 힘든 지난 세월 다 잊어버리시라고 잠깐 그런 병이 왔나 봅니다.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을 어린 시절 모든 기억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기억까지도 모조리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하나하나 다시 기억하기로 해요. 오늘부터 시작된 모든 순간은 모두가 다 행복했다는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의 지붕이 되어 드릴게요. 앞으로 함께 기억해 나가요. 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Letter 06

아내는 통장님

한대식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 생을 바쁘게 살고 있는 집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창원 NC다이노스 야구장을 끼고 있는 야구 거리입니다. 집사람은 이 지역에서 4년째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면 집사람이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와 빌라, 주택 그리고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대형 상가 오피스텔이 있지요. 관리하는 세대수가 400세대가 넘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전체 가구 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NC다이노스가 올가을 야구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 야구 경기가 있는 정규 시즌에는 전국에서 오는 야구팬으로 인해 동네는 차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특히 ‘낙동강 더비’로 불리는 라이벌전, 롯데와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집사람은 가게 일이 끝나는 대로 저한테 “당신은 먼저 들어 가이소. 저는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갈게요”하고는 순찰을 돌고 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비옷과 장화를 신고 가게 일은 저한테 맡겨두고 오수관이 막힌 곳은 없는지, 배수로가 쓰레기로 덮이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저희 동네는 매주 화요일에 재활용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 봉투에 담아 버리는 양심 없는 세대가 가끔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지 재활용품 수거할 때 내놓으면 수거차가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현장에 직접 가서 재활용품 봉지를 바닥에 놓고 완전히 열어서 하나하나 수사관처럼 단서를 찾아나갑니다. 결국은 각종 영수증이나 공과금 용지 등이 나오고 세대 주소까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면 증거물을 들고 그 집으로 가서 “보이소, 사장님!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지, 재활용 봉투에 버리면 우짱니꺼!”라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똑똑히 알려 드리면서 조곤 조곤 훈계합니다. 집사람의 4년간의 노력으로 동네는 상당히 깨끗해졌고 시민의식도 많이 성숙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앞선 차에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더니 검은 봉투를 화단 쪽에 휙 버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을 집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1km 정도 쫓아가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아저씨! 와 쓰레기를 길에 버리능교!” 하고 따졌다는군요. 그러자 중년의 남자는 “머요, 이 아저매가! 내가 언제 쓰레기를 버렸단 말이요?”라면서 딱 잡아떼더라고요.

“무슨 소리하요? 내가 지금 쓰레기하고 아저씨 차 번호, 휴대폰으로 다 찍어놨어요.”

아내는 다시금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구청에다 고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고 그제야 중년 남자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더군요. 집사람은 ‘제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고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럴 때 박수를 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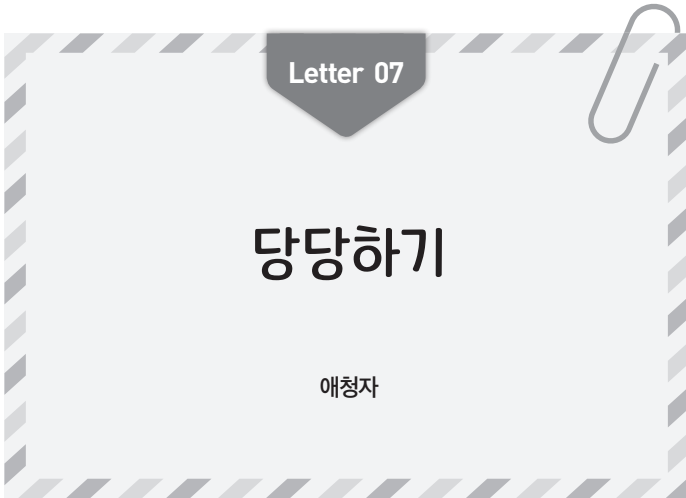
집사람과 가게에 출근해서 일할 때 저한테도 “어이, 아저씨! 3번 테이블 약간 빠딱하고요, 메뉴판도 바로 놓으소!”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왕년에 군대 내무반장 출신인데 오와 열을 맞추는 데는 집사람이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잠든 집사람의 손을 보면 가녀린 새댁의 고운 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역세고 못생긴 생전의 제 어머니 손을 닮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고 미안해집니다.

집사람은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미용 봉사를 갑니다. 외상환자가 있는 노인요양병원과 시골 외진 곳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남 미용봉사단체 일원으로 10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레민속봉사단에서 사물놀이 장구 핵심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2회 여성회관에서 양장 기술을 배웁니다. 이렇게 바쁜 집사람에게 이제는 강제로라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달 말이면 집사람도 통장 임기가 만료되어 이제 한 사람의 주민으로 돌아옵니다. 노나미 23통장님에게 재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곁에 있어 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내년 1월엔 막내딸이 셋째 손주를 출산합니다. 애국자라고 칭찬해 주고 축하해 주세요. 출산 후 딸이 몸을 추스를 때까지 두 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집사람은 벌써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장 임기 끝나면 저는 집사람과 조용히 전국 일주 여행을 떠나볼까 계획 중입니다.



저는 우연히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당당’이라는 칭취자 별명을 듣고 여성시대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당당’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좋은 단어 같아서 미소가 지어지면서도 때론 슬프게 다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전 강남에 위치한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면서 꽤 괜찮은 연봉과 법인카드 그리고 고급 차량까지 지원을 받으며 당당한 커리어우먼으로 걱정 없는 직장 생활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저 역시 23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한 채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십이 가까워진 나이 탓일까요? 재취업을 위해 수도 없이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사무직 직종으로는 저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습니

다. 심지어 제가 보낸 이력서를 읽어 보지조차 않는 회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지원자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인제야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회사에 다니던 시절,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 구인 사이트를 뒤적일 때면 지원자들 이력서를 꼼꼼히 읽어보기도 전에 나이가 많은 지원자는 제외시켰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업무 지시도 불편할뿐더러 제가 하는 일이 전문직도 아니니 기왕이면 같은 능력에 한 살이라도 어린 친구들이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는 나이 많은 지원자의 입장이 되어 우후죽순 떨어지는 이력서에 절망할 새도 없이 이제 눈을 낮춰 그저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무작정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힘들게 찾은 일자리는 온라인 쇼핑몰 새벽 포장 알바였어요.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저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새벽 포장 알바를 시작으로 유통회사 택배 포장, 강아지 간식 공장에 이불에 숨 넣는 알바까지 최근 3년 동안 온몸을 혹사하며 그저 돈 벌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이가 묻더군요.

“엄마, 왜 요즘은 회사 갈 때 옛날처럼 이쁘게 안 입고 다녀? 그리고 엄마는 안경 안 쓰는 게 훨씬 이쁘데~”

순간 예전에 중학생 큰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엄마, 내 친구 엄마는 떡 공장에서 일한대~”

딸은 그렇게 말하며 꺾꺾 놀랐더랬죠. 아이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 사는 집 평수, 자동차 등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는 현실이 참 어이없고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막내 아이에게 “엄마 회사에 직원들 많이 안



나와. 코로나 아직 안 끝나서 집에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찌면 아이들 자존감보다는 그걸 핑계로 저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무실에 갔었어요.

“와~ 여기가 엄마 방이야? 엄청 좋다. 소파도 엄청 이쁘고 칠판도 대따 크다~ 엄마, 여기 칠판에 그림 그려도 돼?”

아이들은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넓은 책상, 안락한 소파 그리고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이는 어른들에게는 그저 답답한 도심의 빌딩

풍경이 너무도 신기하고 좋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전 아이들에게 ‘최고 멋진 엄마’가 되어 친구들과 담임선생님들께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랬었기에 저 스스로 과거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는가 봅니다.

지금도 일하다 보면 저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23년 직장 생활이 어찌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테헤란로에 있었는데 어찌고 주저리주저리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늘어놓으며 이미 지난 과거에 혼자 으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못난 모습을 문득 문득 깨달으며 그 민망함에 스스로 꿀밤을 주기도 합니다.

처음엔 ‘내가 어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려고 살아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늘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볼품없는 모습, 혹여 지금 내 모습을 예전에 알던 누군가가 볼까 싶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못살게 한들 달라질 건 없겠더라고요.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 있겠나. 지금은 그저 잠시 어려운 시기일 뿐이지. 이 또한 지나가면 또다시 좋은 날 기쁜 날이 오겠지. 아프지 않고 소소한 일상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행복이지.’ 스스로 “괜찮아 괜찮아” 다독여가며 “그래 열심히 잘하고 있어” 칭찬해 가며 버텨왔습니다.

또한 여성시대를 통해 당당이님들의 사연에 울고 웃고 공감하며 미니창 댓글로 힘을 보내기도 하고 도리어 제가 힘을 얻기도 했네요. 저는 아직도 인생을 많이 배워 나가고 있어요. 아직은 제 삶 앞에 당당한 완전한 ‘당당이’는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신감 뽐뽐! 어깨 짝 펴고 진정한 당당이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해 가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기 위해 오늘도 파이팅 해봅니다.

Letter 08

지금은 덕질 시대

고릴라 남편 | 충북 제천시

저는 충북 제천에 사는 '고릴라 남편'이라고 합니다. 왜 '고릴라 남편'이냐고요? 제가 트로트 대통령, 가수 진옥님의 광팬인데요. 고릴라 남편은 진옥의 팬클럽 '실크로드' 내에서의 제 닉네임이거든요. 오늘은 우리 장모님과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딸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진옥님의 '덕질 스토리'를 풀어놓으려 합니다.

저에게는 열 살 초등학교 딸 '헐크유주'와 30대 후반의 아내 '진코몽나라' 그리고 불꽃 같은 갱년기를 보내고 계신 60대의 장모님 '뽕크장미'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파트와 처가가 100미터 정도의 거리여서 아내는 자주 처가에 들려 장모님과 수다를 떨고 오곤 합니다. 장모님께서도 가까이에 딸이 있으니 시집보낸 것 같지 않다고 늘 좋아하세요.

작년 봄 어느 날 열 살 초등학교 딸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티브이에

서 나오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보통은 중장년 어르신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 어린 딸이 몰입해서 시청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취향이 아닌가 싶어 “딸내미! 딴 거 보자!” 말하기도 했어요. 먼저 저부터도 트로트를 잘 모르는 데다가 더욱이 남자 가수 다 보니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딸은 제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예 빠져들어서 무대를 계속 보더라고요. 취향이 확고한 아이라 그전부터 리모컨은 딸의 차지이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면 불도저 같이 달려드는 성미에 훗날 아이의 닉네임이 ‘헐크유주’가 된 것이기도 하지요.

딸은 그날 이후로 트로트에 ‘폴 인 립’ 해버렸고 저와 아내도 딸과 함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강제 시청해야 했습니다. 딸은 그 많은 출연자 중에서도 진옥이라는 가수가 나오는 무대를 계속 돌려보더라고요. 그 가수의 팬이 된 것이었어요. 진옥 가수는 해당 경연에서 최종 6위라는 순위를 얻게 되고 전국 투어 콘서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합니다.

한편, 어린이날이 다가오기에 과격한 딸에게 머리를 뜯기지 않기 위해 고민하던 저는 우연히 진옥 님의 콘서트 홍보 글을 보고 홀리듯 티켓을 예매해 버렸습니다. 아내는 무슨 트로트 무대를 보러 서울까지 가냐며 당장 취소하라 했지만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딸이랑 서울 구경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 무대도 같이 보면 평생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되지 않겠냐는 제 설득에 넘어갔지요.

그렇게 저와 아내, 딸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 같이 콘서트장에 다녀왔습니다. 딸의 권유로 진옥 님의 노래를 강제 청취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노래를 술술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무대도 참 멋있고 현장에서 듣는 라이브의 힘에 저는 덩달아 진옥 님의 팬이 되었습니

다. 처음에는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계속 노래를 틀어놓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팬클럽을 상징하는 ‘팬덤 색’인 핑크 티셔츠를 사서 입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공식 팬카페에 가입한 건 기본이고요.

저만 그렇게 폭 빠져있는 줄 알았는데 아내도 슬슬 진욱 님의 팬이 되어가더라고요. 처음에 콘서트 티켓을 당장 취소하라던 사람은 어디 간 건지, 아내는 딸아이의 아이디까지 함께 만들어 팬카페에 가입한 것은 물론 가수의 무명 시절 히스토리를 공부하며 진욱 님이 거쳐 간 역경에 대해서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이른바 ‘덕후가 하는 덕질’에 입문한 것이죠.

누구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젊은 미남 가수에게 훌쩍 반했는데 질투가 나지 않느냐고요. 아니, 전혀요. 도리어 아내가 그 간 육아와 집안일로 고생해 왔던 걸 알기에 새로 취미생활이 생긴 것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광팬이었던지라 덕질의 기쁨을 잘 알고 있거든요.

요즘 딸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다 같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놀 때 혼자서 아이돌 가수가 아닌 진욱 님의 트로트를 틀다고 합니다.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고 친구들이 신기해한대요.

그런데 이 ‘덕질 신드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팬이 우리 장모님 ‘핑크장미’ 님이십니다. 저희가 콘서트에 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장모님께서서는 제게 괴짜 사위라고 하셨죠. 그런데 딸 ‘헐크유주’ 님의 트로트 프로그램 강제 시청 권유와 아내 ‘진코몽나라’ 님의 가수가 살아온 스토리텔링에 빠져 장모님은 결국 현재 가장 열렬한 진욱 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평택 행사를 시작으로 진욱 님이 출연하는 각종 축제와 콘서트를 섭렵하고 계세요. 팬덤 티셔츠에 핑크 점퍼에 응원봉, 부채,

브로마이드까지 장모님 덕은 진옥 가수의 흔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달력에는 가족 행사가 아닌 진옥 님의 각종 스케줄이 빼곡하게 적혀있지요. 집안일하면서도 응원 구호를 연습하고 음원 사이트에서 가수의 노래를 찾아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도 재생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올해에는 따로 여행을 다니지 않고 있어요. 대신 가수가 출연하는 평택 행사에 가서 시장 음식을 먹고, 화천 행사에서 막국수도 먹고, 괴산 축제에서 고춧가루를 구매하고, 영동 축제에서 샤인 머스켓을 먹지요. 대구 콘서트에 갔을 때는 국밥도 한 그릇씩 비우고, 봉화 축제 때는 은어 튀김도 먹으며 가족의 정과 '덕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팬 생활'을 시작하신 뒤로 아주 새 사람이 되셨어요. 말수가 없기도 했고 특히 갱년기를 막 지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는데 요즘은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성격이 한층 밝아지셔서 장인 어르신과 처남까지 좋아하더군요.

우리 가족은 일본 여행을 갈 때에도 이제 팬덤 티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로 '팬 가족'이 되었어요.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하고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타민처럼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성시대를 듣고 계신 20대, 30대, 40대 청취자 여러분! 부디 부모님께서 트로트 가수에게 빠져 계셔도 혼내지 마시고 슬쩍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선물해 보세요. 효도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딸 '헬크유주' 님, 터프한 아내 '진코몽나라' 님, 18세 청춘으로 회춘하신 장모님 '핑크장미' 님과 앞으로도 쫓 건강하게 진옥 가수에 대한 덕질 여정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Letter 09

시어머니의 언어

애청자

나는 어렸을 때 하도 징징거리서 별명이 징징이었다.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징징거렸고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징징거렸고 동생만 예뻐해도 징징거렸다. 할머니가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 싫다고 야단을 치면 더 오래도록 징징거렸다. 말을 배우기 전, 아이들이 자신의 요구를 울음으로 표현하듯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고 성가신 언어를 울음으로 표현한 하나의 언어였던 셈이다.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하거나 언짢은 일이 있으면 밀도 끝도 없이 짜증을 부릴 때가 있다. 며칠 전 학원을 마치고 어머니께 들렀는데 그 날도 침대에 누워서서 까닭 없이 짜증을 부리신다.

“우리 엄마 왜 또 짜증이 났지? 나 없을 때 밭에 가서 일한 거 아니야?”

“아 몰라. 심들어 죽겠다.”

“어쩌나. 맘머느리가 몸이 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요즘은 공부

한다고 더 못 하네. 조금만 일하면 병부터 나고. 나는 왜 이려고 태어났을까 몰라.”

“니가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그러제. 배고프겠다. 같이 밥 먹자.”

시어머니가 밭에서 따온 상추에 막장을 넣고 참기름까지 넣어서 비빔밥을 만드셨다.

“한 입 먹어봐라. 얼마나 맛난 중 아냐?”

“영? 엄청 맛있는데?”

“밥 더 가져오니라. 같이 묵자.”

이럴 때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정한 할머니 같다.

이튿날 오전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두 번이나 왔다. 쉬는 시간이 있기는 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연습하느라 3시간을 꼬박 앉아 있다 보니 수업 중에 전화가 오면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진다. 그래도 전화를 두 번이나 하셨을 때는 급한 일이겠다 싶어 전화했더니 “아가, 느그 서방이 일요일에 들깨를 털어 준다고 했는디 아무래도 오늘 털어야 쓰겠다. 내일 비가 온단다.”

남편이 주중에 일하느라 주말에나 가능한데 어머니는 마음먹으면 당장 일을 끝내야 한다. 내 사정이란 건 안중에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답게 느껴진다.

“이모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으께 너도 학원 끝나거들랑 와서 좀 거드니라. 허리 아프믄 안 와도 된다잉.”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집 가까이에 도착할 즈음 앞마을을 보니 시어머니는 밭 가운데서 깻단을 두드리고 이모는 깻단을 옮기고 계셨다. 점심을 대충 먹고 밭으로 가니 이모가 깻단을 옮기느라 힘들셨는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신다. 이모는 시어머니보다 연세가 한참 아래라고는 해도 칠순이 넘으셨으니 힘드신 게 당연하다. 들깨 밀

동은 마을 분께 부탁해 며칠 전에 모두 잘라놓은 상태라서 주말이 되
기만을 기다렸는데 하는 수 없이 여자 셋이 일을 하게 되었다. 깻단을
몇 번 옮겼더니 다리가 휘청휘청 걸기도 힘들다. 잘라낸 밀동은 사방
이 뽀족해 피해서 걷느라 몸이 더 휘청거렸다.

“쉬어가면서 해. 안 하던 일 하느라 힘들지?”

이모의 다정한 말이 내 엄마의 말처럼 들렸다. 나는 시골 농부의 자
식으로 태어났지만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두 노인네가 깻
단을 두드리는데 젊은 것이 쉽다는 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밭 가
장자리에 애호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모에게 드릴 아욱도 뜯고 무
도 쏙아내며 2시간 만에 일이 끝났다.

“너는 몸이 약한 것도 복이다. 몸이 약해서 일복은 없잖나.”

“엄마는 몸 약한 며느리 났으니 그것도 복이네. 덕분에 일이 줄잖아
요”라고 말대꾸를 했더니 눈을 흘기며 혼잣말을 하시는데 못 들은 척
했다. 몸이 약한 것도 복이라니 나는 이럴 때 ‘이것이 시어머니의 언어
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만의 다른 언어’를 연마하는 사람 같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내게만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은 아니다. 남편은
‘왜 엄마는 엄마 편하자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가’를 노래하듯 말한다.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랬냐?’로 일관되게 항변한다. 시어머니에게
는 모든 일이 매번 새로운 상황이겠지만 마주하는 우리에게 ‘새로움
의 반복’이며 매번 동일한 일들이다. ‘초기 치매’라는 한 마디로 통치
기에는 남편의 오랜 증언이 어머니 말의 힘을 잃게 한다. 그러나 시어
머니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반복의 언
어를 쓸 것이다. 나로서는 ‘포기’가 답이다. 흐르도록 방관하는 것 말
고는 도리가 없다.

Letter 10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조아란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예기치 못한 시련이 연이어 찾아왔다. 남편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났을 때 마치 발밑의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에도 깊은 균열이 생겼다. 믿었던 친정어머니와 형제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깊은 상실감에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남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정지 위험에 처했다. 의사는 제세동기를 포함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부족해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었다. 그로 인해 남편은 눈 떨림과 안면 마비를 겪었고 팔꿈치 연골 제거와 발뒤꿈치 수술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무렵 나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자 평탄치 않은 인생길을 걸어온 나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유방암 수술

직후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유독 따가웠다. 남편과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

몸은 차츰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전에 활기찬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슬픔과 허무감에 휩싸였다.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 절망에 휩싸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식당, 청소, 발일 등 가리지 않고 일단 일부터 했다. 그러자 작은 성취들이 쌓여갔고 그것들이 나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 시기를 나는 이렇게 정리해 본다. ‘삶이 주는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그로 인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다’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몸을 혹사시켰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고생도 마다할 수 없었다. 딸아이는 나를 보며 마음이 아팠는지 자신이 원하는 대학 대신 다른 대학을 선택했다. 딸의 선택이 가슴 아프고 현실의 벽 앞에 무력감을 느꼈지만 딸이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는 소식에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이 무렵 미정 언니를 만났다. 미정 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친정엄마와 형제들이 등을 돌렸을 때도 이웃인 미정 언니는 끝까지 내게 남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언니와의 만남은 내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둘째인 아들이 대학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휴학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우리를 간병한 아들은 이번에는 농업법인 회사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 주었다. 그러면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

는데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서 몰래 눈물 흘리는 아들을 보았다. 우리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고 있는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충분히 해줬다. 네 꿈을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

아들은 아버지 말에 마음을 열고 학업에 다시 전념하기로 했다.

3년이라는 극도로 궁핍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용인시 주거 담당자님과 용인시사회복지관 홍진주 복지사님의 따뜻한 도움 덕에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전세금 지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그분들 도움으로 작지만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오산시로 이사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희망 어린 꿈을 꿀 때 이번에는 남편에게 모야모야병이 찾아왔다. 그동안 심장 수술을 미루었기 때문이라 했다. 남편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병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덕분에 남편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

남편과 나는 지금도 모야모야병과 심장병, 유방암과 싸우고 있고, 유방암 치료를 위한 약 복용 부작용으로 나는 12월에 자궁 수술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나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밝게 자라 주변을 밝히고 있고 우리 가족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을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Letter 11

그 그릇 세트

박지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작년 겨울,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남편은 모든 말을 일축하고 그냥 팔팔하게만 살자면서 현금 팔십팔만 원으로 방바닥에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었다. ‘이 돈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까?’ 반년 이상 생각만 하다가 이참에 오합지졸 그릇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결혼 23년 차, 시집을 때 시어머님이 사주신 그릇 세트가 살다 보니 한 개 두 개 깨어지거나 간간이 이가 빠져서 제대로 남은 그릇이 몇 개 안 되었다. 물론 살면서 세트로 구매한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그릇도 있지만 나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와 나의 안목으로 고른 다소 밋밋하지만 질리지 않는 이 혼수 그릇보다 맘에 드는 걸 아직 보지 못했다. 우리 집은 종가라서 명절이나 제사를 치르고 나면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게 그릇이 상해 있곤 했다. 그래서 이 그릇 세트도 절반 이상

이 깨지거나 짝이 맞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가장 애정하고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이 애장품으로 나는 오래오래 밥을 담아 먹고 싶다.

나는 다른 신부들과 달리 혼수 준비를 시어머니와 함께했다. 친정 어머니는 일하러 다니느라 늘 바쁘셨고 몸도 아프셨다. 어머니와 함께 발품을 팔아가며 최고의 그릇을 고르러 다니다 그 그릇 세트를 발견한 순간 나는 어머니와 내가 취향이 비슷해서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싶었고 한층 친밀해진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예전에 그 그릇 세트와 똑같은 걸 구하긴 어려울 터 나는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돈에다 가지고 있던 비상금까지 합쳐서 백화점으로 갔다. 얼추 마음에 드는 그릇 한 세트는 살 수 있겠지 했는데 몇 번의 발품을 팔아도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릇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역 중고 마켓을 보다가 눈에 익은 그릇 세트를 보게 되었다.

<이사 관계로 짐 정리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께 무료 드림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그릇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순간 내 눈을 의심했지만 그건 눈을 씻고 봐도 분명! 나의 혼수와 똑같은 그릇 세트였다. 어머니와 내 눈을 동시에 사로잡았던 “아! 바로 이 그릇이야” 감탄사를 자아냈던 그 그릇이었다.

나는 여전히 직장인이지만 마침 내일은 증조부 증조모 제사가 들어서 휴가를 낸 날이었다. 종가 만며느리라 아침부터 바쁘겠지만 만사를 제쳐 두고서라도 귀한 그릇을 꼭 받아오리라 생각했다.

중고물품을 덤석 가지고 오는 것을 꺼리는 남편에게는 잔소리 들을 것 같아 비밀로 하고 나 혼자 버스를 타고 갔다. 낯선 초행길에 동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는데 버스정류장에 내리면서부터 난코스기 시작되었다.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좁은 길을 우회전, 좌회전, 철



제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야 하는 고지대였다. 산 중턱의 빌라와 옛날 주택들 대문에는 빨간 글씨로 ‘철거 예정’이란 글자가 한 집 건너 하나씩 표시되어 있었다. 음산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골목길을 한참 오르고 나니 산 중턱에 5층짜리 건물들이 여러 개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계단을 올라 현관문 입구에 들어서니 이사를 준비하는 듯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다. 벨을 누르니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짐 정리를 거의 다 마친 횡한 거실을 뒤로하고 나오셨다.

준비해 간 음료와 간식을 전해드리니 그릇을 넘겨주시며 “제가 무료 나눔을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이거 그렇게 좋은 물건도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며 20년 전 친구들이 집들이 선물로 사준 그릇인데 혼수로 사 온 그릇 세트가 따로 있어서 뜯어보지도 않고 박스째 보관하다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내놓게 됐다고 설명해 주셨다.

20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고 잡다한 물건들은 정리하고 애정하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추려서 이사 간다고 말씀하시는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새출발을 기다리는 설렘 가득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물건 하나로 사람 마음이 이렇게 풍족해질 수 있을까?’

나는 학창 시절 고전문학 책을 한 권 한 권 사 모으던 때의 한껏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떠올랐다. 오래오래 밥을 담아 먹고 싶었던 나의 애장품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마음이 풍족해졌다.

무료 나눔에 덤으로 부부 와인 잔까지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째로 받아 양손 가득 들고 내리막길을 걷는데 붉은색으로 ‘철거’라고 적힌 음산한 골목길에서는 동네에 더는 사람이 안 산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맞다! 나도 이런 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지. 어머니! 덕분에 20년 전 신혼집 생각이 다 나네.’

그 집은 산 중턱에 자리한 남편 회사에서 제공해 준 관사였다. 맞선 보고 한 달 만에 날을 잡고 석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느라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여력도 안 됐고 남편과 나 둘 다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당분간 남편이 살던 13평 아파트 관사에서 살기로 했던 것이다.

당시 시부모님은 혼기를 놓친 아들을 구제해 준 나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고 아껴주셨다. 주말마다 시부모님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했는데 베란다 타일 시공은 시아버님이 직접 해주셨다. 젊은 시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셨던 아버님은 타일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서 붙여주고 방수 공사까지 마무리해 주셨다.

버스정류장에서 20분을 넘게 좁다란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신혼집을 나는 임신하고 만삭 때까지 오르내렸다. 임신했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 수박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려 과일 가게에서 수박 한 덩이를 사서 들고 아파트 계단 입구까지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오면 온몸이 땀범벅이고 무거워서 팔이 후들후들 떨렸다.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 부모님은 우리 부부가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키워주시겠다고 했다. 평일에 신혼집에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창원 부모님 댁에 가서 육아를 했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엄마 아빠의 첫 집에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채 4살이 되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사했고 부모님은 거처를 아예 우리 집으로 옮겨 손녀 둘을 키워주셨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당신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는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부재가 어머니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한 내 탓인 것 같은 죄책감이 있다.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퇴근하고 왔을 때 따뜻하게 차려놓으신 어머니의 밥상 앞에 여섯 식구가 모여 앉아 마주하던 그 시절이 늘 그립다. 오늘 내가 받아온 이 그릇을 나 말고 우리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아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쁘다.

Letter 12

책에 대하여

이경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노벨문학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큰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 이야기에 떠오른 사연이 있어 적어봅니다.

몇 년 전 일본에 사는 동생네 집에서 몇 달간 머물렀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인상에 남은 것 중 하나가 나이 지긋한 사람부터 아직 학교에 들어갈까 말까 해 보이는 아이들까지 많은 사람이 지하철에서도 기차를 타면서도 휴대폰이 아닌 책을 읽고 있다는 거였어요.

올봄 여동생이 딸을 결혼시킨다고 해서 다시 일본에 갔을 때도 인상 깊게 남은 건 일본 사람들이 책을 참 많이 읽는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놀이동산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직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한테 “무슨 책을 저렇게들 많이

들 읽을까?” 하고 물었더니 “여기 사람들은 어른들도 만화책을 많이 읽고 소설책도 많이 읽더라.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따라 읽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동생은 서점보다는 중고 서점에서 책을 많이 사본다고 하더군요. 언제 나도 한 번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일본어로 아침 인사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웬 중고 책방이냐며 의아해했지만 며칠 뒤 자주 간다는 책방에 데려가 주었어요. 평일인데도 책 가게는 꼬마 손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가득했고 중고 책방이라고 믿기 힘들게 매장도 넓고 직원도 많고 책도 많았습니다. 거기다 책들이 하나 같이 너무 깨끗해서 중고 책인지 새 책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동생한테 그 얘길 했더니 책 표지 찢어진 건 저기 안쪽에서 다시 다 고치고 여기 사람들은 책을 찢거나 음식물을 흘리거나 낙서 같은 건 거의 안 하더라면서 자기네 집 애들만 봐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건지 아무리 자기 책이라도 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여동생이랑 책 몇 권을 사가지고 오면서 “너도 책 자주 읽어?” 하고 물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려고 하는데 주로 잠들기 전에 책을 읽다 잠드는 날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어쩐가 돌아보게 됐어요. 학창 시절엔 소설책이며 시집이며 두루두루 읽었지만 요즘은 휴대폰에 빠져서 책을 거의 읽지 않을 뿐 아니라 가끔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대여해 주는 책 가게에 가서 빌려 읽으면 책이 군데군데 찢어져 있거나 음식물이 묻어 있고 낙서도 되어 있어서 인상이 찌푸러지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만큼 이제는 우리도 예전처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책 읽는 사람들 모습도 많이 보이고 책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동네에 가장 변화한 곳에 서점도 한두 곳 있었으면 좋겠



다 싫어져요. 책도 깨끗하게 읽고 난 후 나눔이나 중고서점을 통해 저렴하게 사고팔면 좋겠죠.

얼마 전 대형 마트에 입점한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있으니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가 이런 책도 읽어요?”

그 말에 제가 발끈해서 ‘심심하기도 하고 엄마도 원래 책 좋아한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책 선물도 받고 싶다 했더니 ‘우리 엄마 멋지다’면서 ‘두 권 세 권도 사 주겠다’ 하더군요. 아들이 매달 책을 사준다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입니다.

Letter 13

구순 아버지의 고백

김순자 | 경북 포항시 남구

87 세를 맞은 친정엄마의 생신상을 저희 형제들이 마련해 드렸습니다. 엄마 생신은 추석 며칠 뒤인 음력 8월 20일. 추석 바로 뒤인 만큼 생신 때는 항상 추석을 겸해 축하드리는 정도였어요. 생신이 생신 같지 않아서 늘 죄송했습니다.

엄마는 지금껏 농사를 지으며 91세 되신 친정아버지도 챙기느라 제대로 영양가 있게 끼니를 못 드셔서 그런지 몸무게가 35kg이 될 정도로 기력도 약하셔서 자식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칠 남매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해서인지 작년부터는 치매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수척할 대로 수척해지신 모습과 말수까지 줄어든 모습에 마음이 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석은 추석이고 생신은 생신이라며 형제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와서 주말에 차려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

하셨습니다. 꽃다발도 준비해서 드렸지요.

“이거 얼마고? 이 꽃도 비싸제? 와 샀노? 얼마고?”

“아부지, 가격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엄마가 좋아하시면 됐지요.”

왜 진작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지 않았나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은 부모가 없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매일 새벽 4시쯤 부터 밤 열두 시 넘어서까지 꾸벅꾸벅 졸면서도 일하셨습니다.

저 어릴 때나 중고등 시절 어버이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즐겁게 노셔도 우리 부모님은 일하셨고 백중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루 노는 날을 ‘뚝구 먹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도 오전만 놀고 오후에는 밭일 하러 가셨습니다. 고추, 땅콩, 들깨 등 농사를 많이 지으시니 두 분은 열 손가락이 다 구부러졌어요. 열심히 사신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칠 남매 중에 다섯째 딸, 아래로는 남동생들만 있어서 딸로는 막내딸입니다. 어릴 적 기억을 돌아보면 부모님은 농사짓는 일이 녹록지 않아 고되셨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실 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벼 잎마름병’을 비롯해서 작물에 생기는 병 때문에 농약을 쳐야 하는데 판단을 잘해야 농사가 잘되니 ‘오늘 쳐야 한다, 내일 쳐야 한다’ 그런 일로 다투기 다반사였지요. 게다가 땅콩 고르고 고추 선별하고 고추 말리고 자잘한 일이 많아 자주 싸우고 밤이 되면 새벽까지 끙끙 앓고 무던히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더없이 좋은 분’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농사 때문에 엄마한테는 소리도 많이 지르셨어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화를 많이 내는 엄마가 미웠는데 저도 나이가 오십 넘고 힘들게 살다 보니 ‘그때 엄마가 농사일도 많고 칠 남매 키우느라 힘들고 외로워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아침에 생신상을 차리고 다 같이 식사하려는데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우리는 모두 숙연해져 아버지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할마이, 고생 많았데이. 고생 많았데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생시켜 미안하데이. 생일 때마다 할마이가 ‘왜 내 생일은 멀치 대가리 하나 없노, 멀치 대가리 하나 없네’ 카더라.”

“왜 그래요. 고생은 당신이 많았지요.”

그 모습을 보며 언니들도 저도 목젓이 뜨거워져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의 구부러진 허리 때문에 일어설 순 없어도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의 사랑 고백이나 청혼하는 장면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자상한 모습을 보게 되다니요.

“아버지, 멋지세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엄지척’을 해드렸습니다. 누가 시켜도 저렇게는 못 할 거예요. 내 소중한 여자에게 무릎 꿇는 자세로 눈물과 진심을 전하시다니 보수적인 시골에서 연세 많은 분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다니 우리 아버지는 남자 중의 남자, 상남자입니다. 작년쯤에도 문득씩 “할마이, 사랑한데이~” 하시며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자식과 손주들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그 옛날 고등학교 나오신 분답게 멋지고 로맨틱하고 스윗한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 저희도 부모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Letter 14

왜 딸과 싸웠는지

김재곤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이 것만 읽어줘.”
“몰라~”

“야~ 안 보여서 그래 읽어줘.”

“됐어. 싫어~”

“관둬.”

결국 별커피 화를 내고 말았다.

염색약을 인터넷으로 샀다. 자꾸 새치보다 많게 흰머리가 나고 있다.

육십이 넘어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다. 다행히 전공이 설계다 보니 아직 일하고 있으나 언제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다. 전 달에는 더 이상 국민연금도 내지 말라고 한다. 육십이 넘으면 임의 가입자로 본인 이 회사 분까지 같이 내든가 아니면 그만 내라고 했다. 이제 국민연금도 그만 내라고 하니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나이 든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돈도 아낄 겸 해서 혼자 검색해야지 생각했다. 옛날부터 검색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 좋은 것으로 사야지 하고 며칠을 고르고 비교하고 그래도 젊은 애들은 그런 거 금방금방 하니 딸에게 물었다.

“딸~ 어떤 검색약이 좋아?”

“몰라.”

에구~ 말을 말아야지. 내가 알아서 해 봐야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좋은 것 같은 검색약을 구매했다. 며칠 뒤에 그것이 집으로 왔다. 어떻게 검색하는지 설명서를 들여다보았다. 평소 쓰던 돋보기안경을 써 보지만 그것은 업무용이다 보니 작은 글씨까지 보이지 않았다. 왜 그리 설명서는 작은 글씨인지 나이 드니 모든 것이 불편했다. 나이 드니 안 해도 되는 검색도 해야 하나 울컥한 마음에 하는 방법이라도 읽어 달라고 하는데 만사가 귀찮은 딸은 읽어주기를 거부했다. 어찌면 자꾸 손이 많이 가는 어른이가 귀찮았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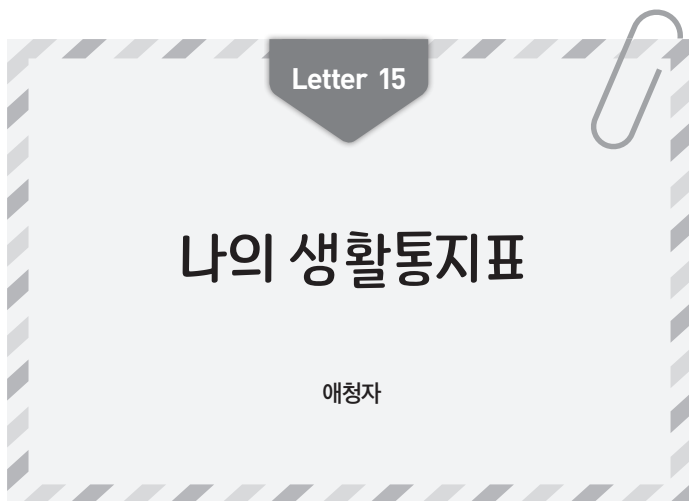
결국 내 서글픈 마음과 아이의 귀찮아하는 마음이 싸움이 되었다. 가끔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와 다른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회적 경향을 보일 때 고집스레 자기 말만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하고 아무 곳에서나 큰소리로 떠들고 하는 것을 이 나이 전까지 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이 들어 서글픈 마음, 나도 여기 있다고 알리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 그런 것들이 뭉쳐졌나 보다.

돋보기안경에 탁상용 확대경을 이중으로 놓고 사용 설명서를 읽고 배합하고 거울 보며 검색을 해본다.

“아~ 아~ 여기 뒤에만 좀 해줘~”

“싫어~”

그래 다음에는 미용실에서 해야지. 너랑 그만 싸워야지. 나쁜 놈.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서 아들 방이 주인 없는 빈 방이 되어 버렸다. 주인을 기다리다 못해 먼지가 쌓여가는 것들을 정리해 줘야겠다 싶어 옷장을 정리하고 책장을 정리하고 책상을 정리했다.

책상 서랍 안에서 연필과 샤프와 볼펜들이 ‘나 언제 써 줄 거예요?’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나하나 써보고 오래돼 잉크가 말라 써지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정리를 했다.

책상 위 책꽂이에 꽂혀 있는 중고등학교 책들은 아들에게 물어보고 보관할 것과 버릴 것을 나눴다. 그리고 각종 파일 속에 있는 10대 때 아들의 흔적들이 보였다. 몇 년 전의 시험지들도 있고 각종 수행평가지도 있고 성적표도 있었다. 버릴 것들이 한가득 나왔다.

책꽂이 아래 칸에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 있었다. 아이

가 어른이 되고 또 결혼하고 지랑 닮은 아이를 낳으면 주려고 보관해 뒀던 일기장. 아이가 쓴 일기장을 보며 추억에 젖어 있던 그때 일기장 속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그건 다름 아닌 아들이 6학년 때인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담임선생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학부모 생활통지표였다. 아들의 눈으로 본 엄마의 학습과 생활 태도 전반을 평가해 놓은 거였다. 부끄럽지만 그 내용을 공개해 보면 이렇다.

기본 학적 사항에 난 아들과 같은 6학년 7반. 이름은 박○○이다. 출결 상황에 결석 일수, 지각, 조퇴는 없다. 특이 사항에 ‘잔소리가 심함’이라 돼 있다. 수상 경력엔 순위 1등의 잔소리 상과 요리상이 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엔 이렇게 쓰여 있다.

<매일 아침마다 잔소리를 하시고, 매일 자기 전까지 최소 30번 이상 잔소리를 하십니다. 성적은 다른 과목보다 실과가 뛰어나며, 요리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매우 꼼꼼하며 청소를 열심히 하시며 제 학교 성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른 친구와 항상 성적을 비교합니다. 앞으로 말과 잔소리를 조심하시면 더욱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교과 평가에는 <국어 - 다른 친구들과 나를 잘 비유하며 말하심. 수학 - 기계부 쓸 때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함. 사회 - 마트나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할인율을 잘 아심. 과학 - 내 앞에서 안 씀. 체육 - 등산을 잘하심. 음악 - 내 앞에선 안 하심. 미술 - 실력이 뛰어나지 않음. 실과 - 요리 실력은 이 세상에서 최고임. 영어 - 단어 외울 때 빼고 내 앞에서 안 하심.>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다. 내용이 어찌나 웃프던지. 6학년 아들의 눈에는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 싶어 우습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무엇보다



다 아들에게 미안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다정하고 친구 같은 엄마가 돼 줄 수 있을 텐데 그땐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10여 년이 흘러 이젠 성인이 되어 버린 아들은 지금의 엄마를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해진다. 부디 엄마와의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있길 바라본다. 서울 있으면서 늘 엄마 아빠 안부 먼저 챙기고 얘기도 잘하고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월세와 용돈까지 스스로 벌어서 생활해 주는 이쁘고 기특한 아들이 많이 보고 싶어져서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다.



배움의 희망길

김경자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학교에 왔다.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구단도 배우고 있다.

야호 파이팅! 도전
나도 잘 할 수 있다.

나에게도 꿈이 생겼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 싶은 꿈이다.



※ 11월 5일 여성시대에 출연하신 고양시 눈빛희망학교 초등과정 학생이신
당당이님들의 시화입니다.

희망의 대추나무

고 순례

나는 배운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친구와 같이 공부 하니까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니까요
서로 만나서 모르는 것 알려주고
함께 공부하니까요.

내가 모르는 것은 친구가 알고
친구가 모르는 것 내가 알고
배우러 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사와 살면서 대추나무는 심었어요
대나무도 열매를 열어주는데
나도 공부를 배워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친구들한테도
편지 쓰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을 이루자

김경주

나는 어릴 적에 학교를 갈수 없었다.
친구들은 보자기에 책을 싸서
허리춤에 멋있게 메고 즐겁게
논밭을 뛰어 다녔다.

집이 가난했고 여자라는 이유로
친구들은 학교에 가면

나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만 했다.
산 중턱에 앉아 친구들이 학교에서 오는 것을
부럽게 봐야만 했다.

세상에 나와 보니 정말 답답하고 캄캄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었다.

공부가 그리 절실할 줄 나도 몰랐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선생님과 우리 반 친구들

함께 꿈을 이루자 하이팅!



희망의 시

김영숙

어린시절 집안형편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가고 장사를 했다.



결혼을 하고 사누라 바빠서
공부 하는걸 잊고 살아 왔다.

처음 시작할 농사는 많이 어려웠지만
꽃도 키우고 재미있게 농장을 기원했다.
그러다 수해로 농장이 휩쓸려지면서



그래도 계속 살아버다보니
평생의 한일 공부도 할수있게 되고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날이 찾아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올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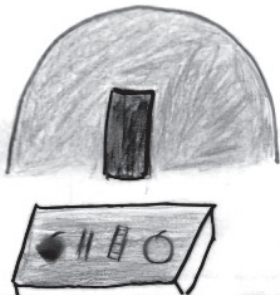
백점이



어려서 사고로 머리를 다쳤다.
 병원을 다니면서 학교에 못가고
 동생을 돌보야 했던 날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걸 보면서 많이 울었다.

열일곱살 때 기술을 배우고 지금까지 고일을 한다.
 그때 기술을 배우지 말고 학교에 단닐 걸
 하는 후회도 해봤다 지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구단도 알고 영어 공부도 한다.

올 엄마 돌아가실 때 미안하다고 하셨다.
 이 글을 엄마 산소에 가서 읽어 드려야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할래요.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1303] 콩 턴 것 선풍기로 날려서 나온 탱글탱글한 메주콩너무 예쁘네요.



[7573] 제 일터가 도산공원 근처라 30분 주어지는 휴식 시간엔 사계절 내내 특별한 날을 빼놓곤 공원 산책을 합니다. 여성시대 책자가 나오는 날에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에 가서 여성시대 책을 가져와 벤치에 앉아 읽곤 하지요.



[8940] 항상 고정, 수고하세요.



[4440] 11월에 노지에서 처음 따뭍니다. 신기합니다.



[8154] 주말에 친정에서 김장했어요. 올해는 날씨 탓에 배추가 아주 작아 소꿉놀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5284] 대파밭에서 작업 중인데 오늘은 코끝이 시리게 춥네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여성시대 가족 담당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서..선생님
뭐라고요!?



커피를
끊어야 한다고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찾아가간 병원에서
커피를 끊어야 한다는 청춘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지친 회사 생활의 유일한 낙인
아침의 아이스 라테를



직장 상사와 한바탕 하고
내 쓰린 속을 달래주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끊어야 한다니.

그렇게 저는 유산균음료를 마셔보기도 하고,
꿀물을 타먹어 보기도 했지만



커피처럼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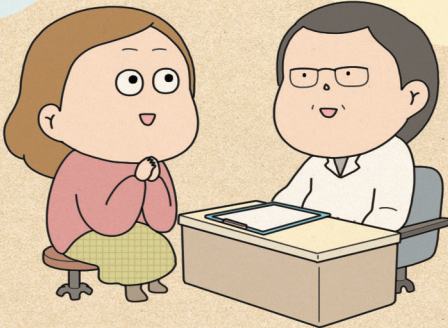
다시 커피를 마시려면 건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기를 3개월
살도 3Kg이나 빠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속 쓰림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
어떤가요?

관리 열심히 하셨나 봐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느덧 종합 검진일

근데 꿀다공증이 시작됐어요.
칼슘제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고
커피 드시지 마세요.



...네?

그렇게 또 커피 금지령을 받은 저는

꿀다공증엔
달기기가 좋았지?



이젠 꿀다공증과 싸워볼 작정입니다.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먹기
쉽지 않구나!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

IBK기업은행 일산성석지점 거래고객

(주)문인테크 정도영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문인테크는 출입문을 뜻하는 '문'과 안을 뜻하는 IN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인(人)을 결합한 이름으로 기술과 혁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즉 안전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갖고 설립되었다.

문인테크는 생활안전용품을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기업이다. 2001년 개인 사업으로 작게 시작하여 2004년 법인 전환 후 현재 생활안전 솔루션을 제시하는 '생활안전 리딩기업'으로 성장했다.

문인테크의 첫 아이템은 기능성 문풍지와 출입문 손끼임 방지 보호대다. 정도영 대표가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한겨울 출입문에 문풍지를 붙이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문에 틈과 공간이 많은 것을 보고 생활하면서 안

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손끼임 방지 보호대를 개발한 것이다. 현재는 출입문 손끼임 방지 보호대를 비롯해 코너가드, 벽면 충격 방지 보호대, 계단 논슬립 등 100여 가지의 생활안전용품 아이템들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문인테크의 첫 아이템이 되었던 손끼임 방지 보호대는 지금까지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현재 1군 건설사 대다수에 납품되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실내 방문에는 손끼임 방지 보호대를



설치해야만 준공 승인이 되도록 국토
부에 법제화되어 이 업계 대표 선두기
업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
집, 학교 등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
손끼임 방지 보호대 및 코너가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되면
서 매출 증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 현
재 호주 및 유럽에도 수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 확장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정도영 대표는 창업 후 약 25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사 및 공공시
설에 손끼임 방지 보호대 및 코너가드
등 안전용품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제
화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인테크의 제품력이 인정받고 있
다. 2008년도 호주 시장에 진출한 이
후 현재 연간 8억 정도의 매출을 올
리고 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
다. 2008년 호주 진출 이후 현지에 머
물면서 문인테크의 제품이 세계 시장
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발로 뛰었
다. 덕분에 호주의 전 유치원에 문인테
크의 제품이 시공되었고 문인테크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것
에 감격해 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
하는 상품으로써 더욱 확신을 가지고
연구 개발로 이어가고 있다.

안전용품은 일반 소비 제품과는 달



리 기호 상품이 아니다.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효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화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업계가 좁지만 경쟁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문인테크는 R&D 연구기관 전담 부서를 만들고 연구 개발을 통해 꾸준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수익 창출만이 아닌 생활 안전용품의 글로벌 시장을 이끌 리딩

기업으로서 세련된 디자인, 정직한 내구성, 편리한 시공성을 갖춘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25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신뢰로 맺어진 협력사들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인테크는 앞으로 안전이라는 가치를 더 높이고 끌어올리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진정한 생활안전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일산성석지점 김지현 지점장은 “문인테크 정도영 대표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개발자 출신의 CEO로 국내뿐 아니라 수출을 통해 국내 우수한 제품을 세계에 알리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2008년 창업

이후 계속해서 IBK기업은행과 인연을 맺은 문인테크의 발전을 위해 신제품 개발 및 공장 운영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컨설팅을 통해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함께 생각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문인테크 정도영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일산성석지점 김지현 지점장

❗ (주)문인테크 정도영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기술 개발에 투자하라.
2. 사람에게 이로운 제품을 만들어라.
3.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하라.

(주)문인테크

대 표 정도영

전 화 031-932-9320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377번길 78-29

홈페이지 <http://www.moonin.co.kr/default/>



믿음, 박애, 봉사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다

IBK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 거래고객

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이윤신 이사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은 높은 의료 수준과 친절한 메디컬 케어 솔루션으로 환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핀다. 모든 의료진과 직원은 설립 이념인 믿음, 박애, 봉사 정신을 이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은 1999년 신경외과 전문의 이기연 명예이사장에 의해 설립되어 2022년 증축을 통해 종합병원으로 인가되었다. 올해 25주년을 맞은 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산 상록구에서 믿음, 박애,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자 설립되었다.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이웃을 위하는 행위라는 믿음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다는 박애정

신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진이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은 안산시 상록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12개의 특성화 전문치료센터와 50명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의료분과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경기 서남부의 환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2022년 종합병원으로 승격되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응급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위급한 환자가 365일 24시간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었다. 단순히 믿음직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정신만을 내세우는 병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이 된 것이다.

안산지역은 다문화가정과 고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은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의료봉사는 물론, 의료 전문가로서 지역 내 소통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헌한다. 특히 안산시 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기관, 가정보호기관 및 다문화기관 등에 의료 지원을 하면서 지역 내의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소방서 및 구급대와 1:1 간담회, 안산시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약 및 기부금 전달식,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촉탁위 활동 등을 통해 의료전문가로서 지역 내 소통 및 컨설팅에 힘쓰고 있다.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품질 및 안전을 평가하는 다양한 인증을 받기도 했다. 대한사회기 내시경 연구재단 및 학회 선정의 우수내시경실 3년 연속 인증 및 우수인공신장실 인증을 받았고 식약처 주관 IRB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간 지정 및 보건복지부 주관 IRB 인간대상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현재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을 운영하는 이윤신 이사장은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환자들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 쓰고 있다. ‘환자와 동료, 자신과 가정을 존중하는 문화’, ‘상호 존중하는 문화, 회식 없는 기업’을 모토로 한 달에 한 번 환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달의 친절사원을 선정하

여 포상하고 있다. 더불어 자녀 출산 시 축하금 및 미취학 자녀 보육비를 지원하고 생일 축하금, 장기근속자 상여금도 지원한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1년에 1회 전 직원 무료 정밀검진을 지원하고 멘토·멘티문화활동을 통해 정신건강도 책임지고 있다. 이윤신 이사장은 “맹목적인 성과주의보다 최고의 메디컬 케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아프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병원, 지역 주



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중호 IBK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으로 출시된 의료사업자 전용 상품을 통해 적기에 대출

을 지원하는 등 의료와 금융이 결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의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이윤신 이사장(왼쪽)과 IBK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 박중호 지점장

❶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이윤신 이사장의 운영 노하우

1.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라.
2.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라.
3.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라.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이 사 장 이윤신

대표번호 031-439-3000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69

홈페이지 <https://www.sarangmc.co.kr/>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81 곰 같은 사람

86 잘 지내고 있지?

여자는 모른다

93 한때는 나도

97 이 집에 청일점

99 판매왕 김찐빵

102 부전자전 취미

105 남자의 의리

107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러스트 | 조신애

사랑 사랑 사랑

곰 같은 사람

애청자

평화로운 토요일 오전 나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널브러져 ‘라디오’를 때리고 있다. ‘라디오 마니아’인 나와 달리 평소 무슨 프로그램을 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던 남편. 오늘도 백색소음 정도로 여기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사랑 사연이 가슴에 와닿았는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이렇게 묻는다.

“근데 여보, 우리 연애할 때도 저렇게 알콩달콩 그랬나?”

어느덧 30년도 훌쩍 더 된 이야기 아닌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멧쩍은지 큼큼 목을 가다듬는다.

“아닌가? 내가 자기 속 좀 썩였었나? 아닌데 말 잘 들었던 것 같은데.”

그이는 참 어리바리 슷기 없는 사람이다.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이나 살 맞대며 지냈는데도 여전히 내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못한다.

하기야 내가 ‘블금’ 야식으로 짬뽕이 좋을까 양념통닭이 좋을까 골똘히 고민하느라 냇을 놓고 있으면 내 옆으로 와서는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라고? 야식 고민하고 있었다고? 아닌데 표정이 좀 다른데. 그 뭐랄까.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들고 중력의 법칙을 생각하는 뉴턴이 짓는 표정 같았다니까. 아 뭐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하는 사람이다.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내게는 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내가 가장 오래 깊이 알고 있는 사람 내 남편은 연애 시절에는 이보다 더했다. 눈을 도록도록 굴리며 ‘우리 연애할 때는 어땠냐’는 질문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이를 위해 그 옛날의 추억을 꺼내본다.

20대 중반의 어느 가을날, 젊은 날의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들고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다. 몽게구름도 커피 위에 올린 휘핑크림도 모든 게 뽕얇고 하야니 예쁘기만 한데 어이쿠야! 건조한 가을 아니랄까 봐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이의 입술과 입가에 허연 것이 번져있는 게 아닌가. 평소 로션 따위는 바르지 않는다더니 오빠의 피부가 잔뜩 터서 각질이 일어난 것이다.

“오빠! 나 몰래 찹쌀떡 먹었어?”

“아닌데? 나 오늘 약속 늦을까 봐 점심도 거르고 나왔는데? 왜?”

“그냥~ 아님 말고!”

“아니 내가 자기한테 신뢰를 못 줬나 싶어서 그러지. 나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 공복이야! 내 배 만져봐 봐. 훌쭉하지?”

여덟 살짜리 애도 아니고 얼굴에 버짐이 생긴 모습이 조금 더러워 보일 법도 한데 당시에 나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었나 보다. 그의 어

설픈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고 핀잔을 주는 대신 가방에 있던 립글로스를 꺼내 들었다.

“오빠, 나 보고 가만히 좀 있어봐.”

“왜?”

“아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입술 한 번 쪽 내밀어봐.”

“아니 지금은 낮이고. 여기 사람들도 많은데.”

오대체 뭘 상상한 건지 시키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입술을 오므리는데 순간 열이 확 났다.

“아오 답답해! 입술 터서 립글로스 발라주려는 거잖아. 설마 내가 뽀뽀라도 할 줄 알았어?”

그제야 가만히 얼굴을 맡기는 그의 입술에 투명 립글로스를 듬뿍 발라준 후 이렇게 말했다.

“오빠! ‘빠 빠’ 해봐.”

“응? 꼭 해야 해?”

“얼른 따라 해. 빠 빠~”

그랬더니 그가 수줍어하며 말한다.

“...아빠 ...아빠.”

“영? 뭐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예 소리를 지른다.

“아빠! 아빠~ 이거 아냐? 네가 방금 이렇게 하라며?”

그 순간 길거리에 있는 모든 중년 남성들이 뒤를 돌아보는데 너무 부끄러워 어디 숨고 싶은 지경이었다. 이 사람 일부러 이러는 건가. 왜 이렇게 눈치도 센스도 슷기도 없는 건지. 하지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순정’, 거기에 나를 향한 사랑만큼은 ‘무한정’이었던 그곳기에 나는 답답한 마음을 꼭 참고 그와의 연애를 이어 나갔더라.

또 몇 달이 지나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비 맞고 가면 감기 걸려. 집까지 데려다줄게.”

오빠는 깜박하고 우산을 못 챙긴 나를 위해 자기 우산을 나눠 씌워주며 자취방까지 데려다주었는데 주황색 가로등 불빛과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 꽤 낭만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일렁였다.

‘아, 이 남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지? 헉 그러고 보니 나 씌워주느라 자기 어깨는 다 젖어 있잖아?’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저~ 오빠, 있잖아. 혹시 바빠? 뒤에 약속 있어?”

“나? 아니? 왜?”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뭐라도 먹고 갈래? 비 오니까 라면이 당기네. 싫음 말구!”

순간 그의 움직임이 로봇처럼 딱딱이기 시작하더니 “그렇까? 근데 진짜 그래도 돼?”하며 내 뒤를 졸졸 따라 처음으로 자취방에 들어섰다.

“오빠, 잠깐만 기다려봐.”

일찍부터 독립을 해서 요리에 일가견이 있던 나는 보글보글 물이 끓는 양은 냄비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파 송송 계란 탁, 심혈을 기울여 나만의 ‘특제라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골 본가에서 받은 묵은지도 총총 썰고 당시에는 귀했던 치즈 한 장까지 얹어 그에게 한상 내밀었다.

“우와~ 나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을 들인 라면은 처음 먹어봐.”

“얼른 먹어봐. 어때? 입에 맞아?”

“진짜~ 맛있어! 근데 자기,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느라 짹짹하지 않아?”

“갑자기? 나 괜찮아. 오빠가 우산도 씌워줘서 비 하나도 안 맞았어.”

“아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풀리지. 나 먹고 있을 테니까 얼른 씻고 와.”

나는 그 순간 ‘아 뭐야~ 먼저 씻으라는 거구나?’ 하며 못 이기는 척 그에게 속아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갈아 입을 옷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다.

그렇게 약 20분간 화장을 한 얼굴은 그대로 두고 목 아래로만 뽀뽀뽀 씻은 다음 욕실에서 나왔는데 “뭐야? 어디 갔어?” 오빠가 열심히 들이마시던 라면이 담긴 양은 냄비는 잘 치워져 있고 밥상 위엔 꼬깃꼬깃 접힌 이천 원짜리가 놓여있었다. 하~ 말로 다할 수 없는 황당함에 지폐를 신경질적으로 펼쳐보니 연필은 또 어디서 찾은 건지 귀퉁이에 글씨가 쓰여 있다.

<오빠야. 너, 오늘 웬지 평소랑 다른 사람 같아서 살짝 무서워. 그래도 덕분에 라면 맛있게 먹고 가. 이천 라면값.>

공간이 부족했는지 문장을 다 마무리하지도 못한 오빠의 메모. 자기는 항상 늑대 같은 남자라고 허풍을 떨더니 아주 미련곰탱이였구나. 난 아주 속았구나! 했더랬다. 때로는 답답하고 그래서 막막했던 그와의 연애 시절. 하지만 나는 그의 곰 같은 매력에 홀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썩과 마늘을 먹으며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서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

누군가는 그의 성격이 어렵게만 보이겠지만 그래도 썩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혹시 마늘이 맵지는 않을까 옆에 딱 붙어 눈물 닦아주는 남편 덕분에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 최고라는 믿음으로 우리 이토록 평화로운 토요일을 앞으로도 잘 누리보자는 다짐으로 그에게 “오빠, 연애 때 속 많이 썩었지!”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본다.

사랑 사랑 사랑

잘 지내고 있지?

애청자

대학 시절 나는 우연한 기회로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용돈 받아 생활하면서 술도 부어라 마셔라 돈 아까운 줄 몰랐는데 외로운 타국 생활에 인생 처음으로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다 내 돈으로 마련해야 했으니 숨만 쉬어도 돈이 훌훌 나가는 기분에 코를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 이번 주 생활비도 벌써 다 썼네. 오늘 저녁도 마트에서 대충 때워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녁에 딸이로 파는 ‘마트 샌드위치’도 한 달째 되니 물리기 시작했고, 마트 시리얼, 부리토, 롤초밥을 다 섭렵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돈을 아끼는 데에도 한계가 있구나.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야겠다.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 실력이 아니다 보니 호주에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다. 그래도 사람 죽으란 법 없

다고 겨우 일자리를 구했으니 그건 바로 늦은 저녁 시간에 출근하는 ‘레스토랑 접시 닦기’ 알바였다. 호주는 스테이크의 나라 아닌가. 사람들은 열심히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나는 스테이크는커녕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겠다고 접시 닦는 처지라니.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고생은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또 해외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버틸 만했다.

그날도 앞치마가 마를 틈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다른 직원이 나가면서 버려달라고 부탁한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뒤쪽 쪽문으로 퇴근한다. 어둑한 저녁 괜히 오싹한 느낌에 모자를 꼭 눌러쓰고 길을 걷는데 저벅저벅 저 앞에서 건장한 청년 셋이 걸어오더니 내게 말을 건다. 거나하게 취했는지 혀가 꼬인 발음에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면서 놀리고 있다는 거였다.

‘이런 게 인종차별이구나. 피곤하다.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으니까 얼른 가라’ 생각하며 그들이 내 모자를 훑 뺏어갈 때도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웬 동양인 여자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헤이 유! 너 완전 비겁하다. 술 취했으면 괜한 사람한테 꼬장 부리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지 그래. 너희 대학생이지? 어디 학교 다녀? 내가 너희 얼굴 사진 찍어서 SNS에 인종차별 하는 애들이라고 글 올려줄까?”

그들은 웬 여자애한테 이렇게 호되게 혼날 줄은 몰랐는지 괜히 깔렁거리며 두어 마디 하다가 자기들끼리 휘 떠나버렸다. 그들이 바닥에 버리고 간 내 모자를 그 여자가 주워서 내게 건네준다.

“괜찮아?”

“아,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한국인이세요?”

“응. 너도 한국인이지?”

나는 속으로 ‘날 도와준 건 고마운데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생각했지만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네, 어학연수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너, 아까 같은 상황 또 생기면 그렇게 가만있으면 안 돼.”

“네?”

“여기 애들은 덩치만 컸지 의외로 겁이 많아서 강하게 나오면 어찌지를 못한다니까? 다음부터는 바보처럼 당하지 말고 그냥 성질을 부려버려.”

나는 또다시 생각했다. ‘진짜 아무것도 참지 말고 내 성질대로 말해 봐? 왜 자꾸 반말이냐니깐?’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법. 대신 소심하게 한국식 질문을 던진다.

“근데요. 저기 몇 살이세요?”

“여기 호주잖아? 반말하면 안 돼?”

“그래? 그래 그럼 너 몇 살이냐?”

“나, 스물넷.”

“스물넷? 와~ 나보다 두 살이나 어린 게 너 다음부터는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알겠냐?”

“오빠? 내가 왜?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볼 일이 있냐?”

“응, 아니 그냥 하는 소리지.”

“너 이메일 주소 좀 줘봐. 아니다, 여기 휴대폰 번호 뚫었지? 번호 좀 줘.”

‘뭐지, 이 어이없는 여자애는...’

난생처음 만나보는 화끈한 성격에 나는 얼떨결에 이메일 주소와 휴

대폰 번호를 모두 알려주게 되었고 다음 날 저녁 그녀에게서 문자를 한 통 받았다.

<저기 해변에서 맥주 행사한다는 데 같이 갈래? 너 주말에도 알바해?>

오빠라는 호칭은 저기 날려버리고 곳곳이 ‘너’라고 보낸 문자가 참 그녀다워서 나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다. 실소뿐일까. 손가락도 척척 알아서 움직이니 어느새 보내버린 답장.

<일요일은 바쁘고 토요일엔 괜찮아. 어디서 볼래?>

의지할 곳 하나 없어 호주에서의 생활에 슬슬 염증을 느끼던 내게 그녀는 새로운 즐거움이자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유명한 젤라도 집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누가 새치기를 하면 우물쭈물 말 못하는 나와 다르게 그녀는 “익스큐즈미? 위얼 인 라인! 저기요? 저희 여기 줄 서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대신 항의할 줄도 알았고 마트에서도 완제품이나 밀키트를 사기보다 식재료를 몇 개 장만해 오래 요리해 먹는 게 더 낫다는 생활 꿀팁을 알려주기도 했다.

“근데 너는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아~ 난 대학을 여기서 나왔거든. 국적은 한국인인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한국에서 살기가 싫었어. 그때는 호주가 도피처 같아서 그냥 훌쩍 떠난 건데 여기도 살다 보니까 그냥 그래.”

그녀는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 어디서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늘 당당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고민이 있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조금 놀랍기도 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차피 오래 있을 생각도 아니었고 이제 일 년 거의 다 되어가니까 슬슬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내가 메일로 계속 연락할게. 나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게 새롭기만 했던 그래서 즐겁고 때로는 많이 아팠던 호주에 서의 어학연수 생활. 1년의 시간과 그녀와 함께 쌓은 약 9개월의 시간을 끝으로 나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다.

비행기를 타는 동안 문자도 메일도 되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나는 조금 깨달았던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지금쯤이면 그녀에게서 연락이 와있을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메일부터 확인해야지!’ 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아마 그녀를 우정으로 아니 조금은 사랑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말이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나는 그녀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는데 “아오~ 메일 주고받는 거 답답해서 안 되겠어. 국제전화 많이 비싼가? 그 앱 중에 보이스톡 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전화나 하자!” 그녀의 제안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씩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 소식을 묻곤 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까 서로 전화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걸 넘어 조금 소원해질 무렵 그녀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여기도 이제 재미없네. 나 한국 가는 비행기 끊었어. 거기 가서 뭐라도 좀 해볼래.”

호주가 아닌 한국에서 보는 그녀는 어떨지 두근거리는 마음에 몇 밤을 설쳤고 그렇게 다시 만난 그녀. ‘웰컴’을 외치며 그녀를 데리고 단골 백반집으로 향했다. 뜨끈한 김치찌개와 돼지 짜글이, 이게 다 호주에서 먹으면 얼마냐며 코를 박고 먹는 그녀에게 물었다.

“어때? 한국에 오니까 좋지?”

“뭘, 좋네. 한국은 딱히 변한 것도 없네.”

“앞으로 어떻게할지 계획은 정했어?”

“어학원 일을 해볼까 싶어. 근데 좀 더 알아보려고.”

“그래 너라면 뭐든지 알아서 잘할 거야. 혹시 필요하거나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하고. 아참, 부모님은 이따가 만날 거지?”

“생각해 봐야지. 사실 나 한국 온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셔. 지금은 아는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

“뭘? 에이~ 그래도 한국에 온 건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부터였을까. 마냥 즐거웠던 호주 시절과는 다르게 그녀와 조금 씩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와 나의 생각 차이는 어느새 ‘이해’가 아닌 ‘오해’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

“너 어학원 알바 그만뒀다며? 페이도 괜찮고 커리어 쌓기도 좋은 거 같은데. 몇 달만 좀 더하지. 한국은 그래도 1년은 채워야 어디 가서 경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

“나 오늘 기분 별로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아니~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지.”

“그러니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자꾸 나를 가르치려 하는 건데?”

“야, 그럼 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힘내라, 잘될 거다 그런 말만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참나, 기껏해야 두 살 더 많으면서 자꾸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 오빠 생각만 정답이고 옳은 게 아니라고!”

나에게 와다다 쏘아붙이는 그녀 그리고 얼굴이 벌개져서 서운해하는 나.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야, 그럼 하나만 묻자. 난 너한테 도대체 뭔데? 그냥 심심할 때 불러서 밥 먹고 너 푸념 늘어놓는 사람이나? 나란 존재가 너한테 그거

밖에 안 되냐?”

“됐으니까 오늘은 그만 얘기하자. 나 피곤해. 밥은 내가 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건지. 벌떡 일어나 계산대로 척 척 걸어가 카드를 긁고 나가버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복잡했다. 내가 그녀를 좀 더 보듬어줘야 했던 걸까. 내가 너무 내 생각을 고집했다. 집에 와서 후회로 뒤척이기를 한 달, 그녀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보지도 못하고 또 한 달이 지나 그녀를 거의 두 달 만에 만난 날이었다.

“내가 오늘 보자고 한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야.”

“응?”

“나 다시 호주로 돌아갈 거야. 한국에서 뭘 하고 싶은지 왜 와야 하는 지도 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온 것 같아. 그동안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웠어.”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리고 내가 호주로 가는 게 나를 위해서도 오빠를 위해서도 맞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좋게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하자. 진심으로 행복했어.”

어쩌면 나조차도 그녀와 너무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녀와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그녀를 보내버린 나와 마지막까지 쿨하고 멋있게 관계에 예의를 다하고 떠나버린 그녀. 그렇게 우리의 청춘의 한 페이지가 넘겨졌다. 벌써 5년이 다 된 일. 이제는 연락이 끊겨버려 안부를 물을 순 없지만 가끔 그녀 생각이 난다. 야, 거기서 잘살고 있냐?

여자는 모른다

한때는 나도

애청자

20대 때는 저도 정말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였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SNS를 하는 것처럼 당시 유행하던 미니홈피에 쉬 없이 셀카 사진을 업로드하고 마음을 담은 문구들로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지요. 최신 유행하는 옷과 헤어스타일을 가장 먼저 장착하려고 잡지도 많이 봤고 소위 핫플이라 불리는 곳들을 불나방처럼 날아다니며 젊음을 불태우곤 했어요. 그때는 밤새워 놀다 출근해도 피곤한 줄 몰랐지요. 그러다 첫눈에 반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지금은 어느덧 40대의 가정으로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젊은 친구들은 버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저는 잠이 모자라서 굶아떨어집니다. 회사에서는 하루에 미팅이 많게는 7개까지 있어서

정작 제 업무는 제대로 마무리도 못 했는데 시계를 보면 어느새 저녁 9시. 부랴부랴 마지막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해요. 집에 오면 아이들의 마중을 받고 씻고 금세 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니 솔직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뉴스도 잘 못 보니까 유행어나 신조어, 새로 나온 히트 상품 같은 건 아예 모르고 살아요.

며칠 전엔 회사 구내식당에서 후배들과 밥을 먹는데 식당 모니터에 걸그룹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 댄스는 후배들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와, 저 친구들 누구야?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예쁘다.”

그러자 그 순간 후배들이 일제히 저를 무슨 신기한 유물 보듯 매우 요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차장님, 아이브 모르세요? 장원영 있는 그룹인데~”

“장원영?”

“어머! 차장님! 설마 장원영도 모르세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 유행어 만든 애. 엄청 유명한데? 어머 아직 차장님, 아직 그럴 나이 아니시잖아요?”

럭키비키, 그건 또 뭐죠? 그렇게 저는 후배들에게서 뒷방 늙은이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도 똑같이 놀라더라고요.

“우와 당신 어떻게 아이브도 모르냐. 뉴진스는 알아?”

다행히 뉴진스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지만 일단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 뉴진스는 알지. 가수잖아. 아이돌~ 인기 많고~ 이쁘고~ 춤 잘 추고~”

“오~ 웬일이래? ‘새로 나온 청바지 아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럼

뉴진스가 몇 명이야?”

앗! 이걸 예상치 못한 질문. 저는 아내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힌트 삼아 계속 아는 척을 했습니다.

“뉴진스가 그러니까 세 명? 보다는 많잖아? 그치? 알아~ 핑클처럼 네 명도 아니잖아~ 그래 그거보단 많지. 그러니까 소녀시대처럼 한 여덟 명? 보다는 적지. 그래~ 그래 적더라. 그러니까~”

“으휴 됐어. 당신 진짜 회사에서 왕따 아니냐? 나 좀 걱정된다.”

아내는 요즘 트렌드를 너무 모르면 직원들과 대화가 안 되고 팀에서 걸들게 될 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근데요. 솔직히 제가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 버스에서는 피곤해서 뚫아떨어지기 일쑤인데 어떻게 뉴스 기사를 일일이 다 보고 쇼츠 유행을 따라잡나요.

그런 제 사정을 모르지 않는 아내가 그래서 요즘은 잠들기 전에 요즘 유행하는 핫한 트렌드에 대해서 속성 과외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다른 건 안 봐도 이걸 꼭 봐야 해. 흑백요리사. 마지막 두부 요리만이라도 좀 봐봐. 그리고 여보~ 이걸 뽀끼뽀끼춤이라고 야구 응원단 춤인데 자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거 춤이러니까! 왜 이렇게 뽀격거려?”

그렇게 아내와 달밤에 춤도 추고 너튜브 인기 동영상도 챙겨보면서 나름 달달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기 전에 음악을 하나 틀더니 “여보~ 이게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노래야.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부르는 노래니까 또 후배들 앞에서 윤수일 아파트 타령 하지 말고! 알았지? 아 맞다! 그리고 로제는 블랙핑크 멤버 이름이야. 로제 파스타 아니다. 꼭 기억해. 알았지?”



제가 회사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걷들까 봐 이렇게 저렇게 최신 트렌드도 알려주고 백화점에 데려가서 요즘 유행하는 옷이랑 신발도 사주는 아내 덕에 그래도 이제는 회사 티타임 때 어느 정도 껴서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었어요.

이참에 우리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면서 살아. 알았지. 사랑해~”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 집과 회사만 다니면서 너무 재미없게 살지는 맙시다. 한 번뿐인 인생 신나게 살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여자는 모른다

이 집에 청일점

애청자

우리 가족의 아침 식탁은 늘 분주하다. 아내와 딸은 오늘도 작은 목소리로 웃음을 터트리며 무언가 얘기하고 있다.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주방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고 두 사람은 지지배배 상쾌한 아침을 수다로 깨우지만 그 따스함이 내 마음속까지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식탁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나의 존재가 그녀들의 안중에는 없기 때문이다.

아내와 딸 두 사람은 죽이 잘 맞는다. 얼굴도 체형도 둘이 닮은 데다가 유머 코드가 잘 맞는지 별거 아닌 말에도 까르르 친구처럼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러다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서 둘이 싸우고 토라져서 온 집안 분위기를 시베리아 북극 기후보다 춥게 만들었다가 또 언제 자기들끼리 풀었는지 둘이 까르르 마주 보며 웃곤 한다.

이 집에 청일점인 나는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끼고 싶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말은 분명 한국말인데 나와는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딸은 얼마 전 아내가 복직하게 되자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았는지 오만 원권 지폐로 케이크 모양을 만들어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고 나 역시 '우리 딸이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뿌듯함에 마음이 몽클했다. 그리고 나도 이내 눈물이 났다. 내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사줬는데 싫어서.

딸이 어렸을 때는 아빠인 내가 딸의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다. 작은 단풍잎 같던 딸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뛰어다녔던 기억, 내 무릎 위에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줬던 밤들, 내 작은 손짓 몸짓 하나에도 함박웃음을 짓던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엄마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중학생인 된 딸에게 나는 이제 조금은 어색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 같다. 물론 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고 있다. 딸이 엄마와 가까워지고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가끔은 나도 딸과 엄마가 나누는 웃음 속에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두 사람이 자매처럼 지내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딸이 엄마에게만 속삭이는 비밀을 아빠도 알고 싶다. 딸이 자신만의 고민을 나에게도 나눠주었으면 한다.

엄마와 딸이 나누는 그 특별한 유대감을 자매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이 집에 청일점, 아빠인 나도 조금은 나눠 갖고 싶다.

여자는 모른다

판매왕 김찐빵

애청자

저는 아내와 같이 파배기 전문점을 하다가 찐빵집으로 간판을 바꿔 단 지 이제 17년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 곁에서 새벽잠 설치며 안 아픈 관절이 없을 정도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늘 미안하고 가슴 찡하고 때론 불쌍하기까지 한 게 남자들의 맘이겠죠.

하지만 요즘은 재룻값도 많이 오르고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에 장사하다 보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연스레 손님은 줄고 매출 타격도 큼니다. 저희 집 베스트셀러인 단팥 찐빵은 물론이고 옥수수 찐빵, 흑임자 찐빵, 크림치즈 찐빵, 우유 생크림 찐빵 등 새롭게 출시한 메뉴들이 좋은 호응을 얻었지만 역시나 가격에 부담을 느껴 점점 줄어가는 손님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만의 필살! 영업 전략을 세워야만 했지요.

우선 첫 번째 ‘넉넉한 서비스로 인심을 얻자!’

아침에 찐빵이 나오면 주위 상가를 돌면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빈속으로 일하시면 속 버립니다~” 하면서 넉살 좋게 빵을 나눠드렸고 지나가는 학생들과 어르신들께도 조금씩 맛을 보여 드렸죠. 그러자 하나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허~ 아침마다 얻어먹는 빵이 왜 이리 맛난지 모르겠네. 정말 고마우이~”

“아닙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셔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어르신 뵈 때마다 새벽마다 리어커 끌고 발일 가시던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요. 늘 건강하셔야 해요 어르신!”

“사장님~ 사장님은 아들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저 평생 공짜로 빵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걸 어쩌나~ 아저씨는 아들만 셋인데 우리 학생처럼 이쁘고 성격 좋은 놈이 한 놈도 없네. 아저씨가 미안해. 대신에 아저씨 가게가 저 아래 사거리 오른쪽 횡단보도 앞에 있으니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출출하면 언제든지 와. 찐빵 서비스 잔뜩 챙겨줄게.”

그렇게 예비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서서히 저희 찐빵 맛에 스며들게 된 분들이 하나둘 가게의 존재감을 알아갈 때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전략, ‘탕후루보다 달콤한 말로 단골을 만들자!’

“나는 내 평생 이리 맛난 빵은 첨 먹어봐요.”

“아이고 진짜요? 저는 제 평생 이리 고우신 어르신은 처음 봅니다. 할아버님이 참 복이 많으신 분이셨나 봐요.”

“호호호~ 그류? 근데 그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밖으로만 돌았으니 지 복을 지가 찬 거지 뭐~.”

“흠흠~ 저는 우유 크림 찐빵 다섯 개만 포장해 주세요.”

“아~ 지난번에 단팥 찐빵 사 가신 손님 맞으시죠? 제가 변우석처

럼 잘 생기셔서 기억합니다. 단팥 찐빵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제가 서비스로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처음 오신 손님은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 오신 손님은 구면이라 반갑고 세 번 오신 손님은 단골이라 반갑고 네 번 오신 손님은 가족이라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면서 유머와 애교를 섞어가며 단골 유치에 나선 그때 하루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겠어. 애교가 많아서.”

“이게 내가 새로 계획한 영업 방침이야. 처음엔 나도 좀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애교가 느네.”

“치~ 나한테도 그렇게 애교 좀 부려주지. 평생을 목석처럼 차갑고 딱딱하게만 굴더니 너무하네!”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내는 저의 새로운 영업 방침이 별로였나 봅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제가 무슨 이유로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애교 섞인 말투로 장사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다 하루라도 더 일찍 돈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아내랑 캠핑카 한 대 사서 아내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거 다 챙겨주면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함인데 아내가 이걸 질투하다니요.

게다가 저는 아내가 힘들까 봐 새벽엔 거의 저 먼저 출근해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퇴근하면 몸딩이가 천근만근이지만 아내 얼굴에 팩도 붙여주고 마사지에 술상도 봐주면서 기분을 맞춰줬는데 제가 애교를 부리지 않는다고 빼지다니요. 안 그래도 무뚝뚝한 아내 뒤통까지 제가 손님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런 제 맘도 모르고 아내가 제발 따뜻한 찐빵 속 터지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무거운 가장의 무게, 제 진심을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부전자전 취미

애청자

저는 어릴 적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즐거움은 아버지를 따라 만화방에 가서 무협 만화를 쌓아놓고 보는 거였어요.

“아들아, 모름지기 남자는 <열혈강호>와 <용비불패> 정도는 알아야지. 수많은 혈투를 벌이면서 결국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무림의 고수들을 보면서 너도 천하제일의 강호가 되거라.”

“네, 아버지.”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피와 뜻을 이어받아 무협에 빠져 지냈고 지금도 웹툰이나 웹소설로 무협을 즐깁니다.

“박 대리님, 점심 드셨어요?”

“어, 영주 씨~ 나는 먹었지. 영주 씨는요?”

“저도 지금 먹고 오는 길이에요. 커피 두 잔 샀는데 드실래요?”

“어후, 고맙죠.”

“박 대리님은 항상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다른 분들은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러 가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시던데 박 대리님은 늘 책을 뭘 읽고 계시네요.”

“아~ 이거 그냥 소설이에요. 제가 워낙 책 보는 거 좋아해서.”

“멋있어요. 책 읽는 남자.”

사실 그때 제가 읽던 책도 별거 아닌 그냥 무협소설이었는데 당시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아내는 제가 독서하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네요. 짬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 모습이 굉장히 지적이고 인상적이었대요.

결혼해서도 저는 시간 여유가 생기면 아내와 함께 서점에 가거나 대형 도서관에 가서 종종 데이트를 즐겼고 둘 다 그렇게 활동적인 성격은 아니었기에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영화나 전시회 관람을 하면서 정적인 활동을 즐겼습니다.

“오빠는 다른 집 남자들처럼 돈 많이 들어가는 골프나 낚시 같은 취미를 안 좋아해서 참 다행이야!”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진 분명 이렇게 말해주던 그녀. 하지만 그녀가 변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남자들은 축구나 야구, 농구 같은 스포츠를 잘해야 인기가 많다는데 우리 애는 몸치래. 몸치! 오빠, 애가 누굴 닮아 이럴까? 소파와 한 몸이 된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오빠가 좀 대답해 봐!”

제 아들이 누굴 닮아 몸치냐니 대체 누굴 닮았겠어요. 스포츠량은 답을 쌓고 살아온 지 아빠 저겠지요. 저는 스포츠는 아주 췌병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안 그래도 축구를 가르치려고 축구 교실에 데려갔는데 반에서 월등



하게 잘하는 아이가 보여서 그 집 엄마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그 엄마가 또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뭐 따로 가르친 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애 아빠가 틈만 나면 같이 공 차주고 조기 축구회도 데려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어요.”

이러니 아내는 또 저에게 푸념하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안 움직이니깐 아들도 똑같이 안 움직이려고 하잖아. 당신 아들 몸치인 거 다 자기 탓이야.”

아니 언제는 제 취미가 정적이라서 좋다더니 이제는 활동적이지 않아서 싫다니 이거 원 억울해서야 살겠나요. 취미마저도 검열당하는 남자의 인생, 정말 서럽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남자의 의리

애청자

집사람이 말한다. 친구끼리 돈거래는 절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나는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안 된다고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던 그 친구는 나랑 배꼽 친구로 육십년지기. 식구 이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운 형제 같은 친구다. 오죽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그런 말 잘 못하는 친구인데 싫어서 마음이 안 좋다. 선뜻 ‘친구끼리 이 정도야 빌려줄 수 있지~’ 하고 싶었는데 ‘돈 관리는 집사람이 해서 같이 의논해 보고 연락해 줄께’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면서 맥주 두 캔을 샀다. 아내와 술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친구 알지? 이중이.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렵나 봐. 어제 전화했더라고...”

“왜? 돈 빌려 달래?”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알지? 친구끼리는 절대 돈거래 하는 거 아니다. 괜히 친구 어렵다고 보증 서주고 돈 빌려주고 그러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는 거야. 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 명심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냐.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는 돈 좀 있냐? 서로 힘들 때는 친구끼리 돕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속 편하게 줄 수 있는 돈. 당신한테 얼마나 있냐 물어보는 거야.”

“뭘?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속 편하게 줄 수 있는 돈? 지금 그럴 돈이 집에 얼마나 있냐고? 당신, 지금 우리 애들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은행 이자에 이번 달 카드 값이 얼마지 모르냐고? 여보, 나나 좀 도와줘. 친구 말고 나를 좀 도와라고.”

역시나 씨알도 안 먹혔다. 오히려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얼마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밤이 깊도록 잔소리를 들었다.

그 친구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은 더 어려운 건데. 아내는 대체 남자의 의리를 뭐로 보고 떼먹을 걱정부터 하는지. 여자는 모른다. 물보다 진하고 피보다 강한 남자들의 우정을! 오십년지기의 의리를!

그래서 난 결국 아내 몰래 큰돈은 아니지만 친구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보내줬다.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여자는 모른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애청자

집에서 남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6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우리 부부는 연애 4년 결혼 11년 합하여 15년을 서로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두 살 어린 관계로 아내에게 누나 같은 포용력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제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처가에서는 듣직한 장녀지만 엄마의 사랑이 고파서인지 저에게는 한없이 아기같이 굴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가끔 다룰 때 아내는 꼭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씁니다. 거의 매일 여성시대를 듣고 있는 제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아내가 연애 초에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고요. 순진하게 이름까지 말하면서 곧이곧대로 대답했다가 지금까지 16년간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멍하게 있으면 “또 그 사람 생각해? 당신의 마지막 사랑, 그 이름이 뭐였더라~” 건망증이 심해서 매번 휴대폰을 손에 들고도 휴대폰을 찾는 여자가 그 마지막 사람 이름은 까먹지도 않고 매번 스스로 잘도 기억해 냅니다.

“근데 왜 마지막 사람만 물어? 내 첫사랑은 안 궁금해?”

“치~ 첫사랑은 꼬마 시절이라 관심 없어.”

저 또한 그런 아내의 옛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에 대해 놀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장난으로라도 말하다 보면 진짜 질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질투는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또 아내는 제가 뭔가 실수를 하면 온종일 아니 며칠을 수시로 불쑥 불쑥 그 일을 꺼내서 폭풍 잔소리를 하고 또 합니다. 뒤끝이 너무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지치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지만 참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다시는 그 일을 입에 올려선 안 됩니다. 혹여라도 다시 꺼낸다면 그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참아야 합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런 이기적인 아내를 제가 이기지 못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참습니다.

처녀 때보다 체중이 많이 늘어서 아내의 늘씬했던 몸매가 그림기도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아내의 얼굴이 보기 좋아서 놀리기는 해도 내심 더 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먹이고 싶습니다. 번비가 있는 아내는 마지막으로 큰일을 언제 봤는지 늘 걱정하고 번기가 막히면 저를 부릅니다. 자기의 것인데도 늘 저를 부름

니다. 그럼 저는 묵묵히 가서 해결합니다. 그거 정말 아무나 못 하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또 잠귀가 밝은 저는 자다가 아내가 뒤척이면 바로 잠에서 깹니다. 아내가 또 이불을 또 찢네요. 잘 덮어주고 다시 잡니다. 잠든 그녀의 모습은 사랑스러우니까요.

갱년기라고 짜증이 많아지는 아내. 어떨 땐 그 짜증이 못 견디게 힘들지만 사랑하니까 참습니다. 아내는 저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자기만 그런 거 같으면서 불멘소리를 합니다. 제가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수시로 사랑 표현을 합니다. 자주 포옹하고 손을 잡습니다. 저는 웬지 그런 게 쑥스럽습니다. 표현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는 또 한마디 합니다.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하아~ 이 여자 진짜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는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 수고와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온갖 짜증과 잔소리도 견뎌내지 않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살피며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무릇 남자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눈치 보는 걸 질색하며 승리욕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눈치를 보고 저주는 건 대단한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종종 잘 모릅니다. 당신 곁에 있는 남자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제발 사랑하냐고 너무 자주 묻지 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제 아내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 거 같아서 당신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가는 길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중학교 때 2학년 5반이었던 친구 세 명과는 자주 만나진 못해도
톡으로 소식을 주고받는다.

남편이 먼저 떠나신 친구는 뒷정리를 마치고 여행을 다니나 보다.
조지아 가는 길, 공항버스 타러 간다는 소식.

그런가 하면, 남편 눈이 또 안 보인다고 해서 계속 병원 보호자로
따라다닌다는 친구는 안과에서 투석 병원으로... 끝나면 데려오는
게 일과라고 했다. 간병하는 사람의 힘이 빠지면 안 되니 각자 ‘나’
를 잘 보살피고 돌봐야 한다고 했다.

정말 ‘나’라도 버텨야지. 안 그럼 올스톱이란다. 오늘도 잘살아 보
자, 지치지 않게. 본인 건강도 잘 챙기고 마음 편히 갖고 잘 이겨내기
를! 서로 응원했다.

아르메니아에 갔다가 조지아 트빌리시에 와있다는 친구의 특도
도착. 그 친구는 10월 말에 돌아와서 11월 중순에는 1박 2일로 장
흥 강진 선운사에 다녀왔는데, 선운사 단풍이 절정이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단풍을 봐서 좋았단다. 그렇구나, 좋았겠다 하는 사이 다른



친구의 특이 올라왔다. ‘독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좀 무리했더니 몸이 안 좋아. 독감인지는 검사를 해봐야 안다는데 약은 같다면서 약을 지어주어 먹고 오늘 이제 일어났어.’ 남편과 자기 두 노인들이 서로 죽을 쑤고 산단다. 독감, 코로나 백신 가볍게 볼 게 아니다. 의사가 하루는 꼭 쉬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날이 추워지니 빨리 낮기를… 하며, 이인호의 ‘황혼’이라는 시를 올렸다.

늙어가는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이 마음과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뜻한 친구가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하여
 노욕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두리번 찾아봅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보다
 아름답다는 해님이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공감되네...

그래, 공감되고 서글퍼...

그치?

그치 그치?

느닷없이 너튜브 영상을 올린 친구.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파열 확률 및 파열성 뇌동맥류의 위험성’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들었어. 나도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말이야.

호미- 건강한 황혼은 어디 있을까?

독일서 가을을 만끽하러 온 또 다른 내 지인은 목요일 2시에 휴대
 폰 쓰기 과외 공부를 같이하자는데 일정이 안 맞아 못했다. 그 친구
 역시 뇌경색이 지나갔다. 그 후부터 모든 먹거리에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맨손체조를 하고, 잡곡 가득한 시커먼 밥을 아예 싸 들고 다
 니는데 유별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 황혼이 서글프지 않을테니.



겨울 이야기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추운 겨울보다 여름이 좋아진다. 그들의 시원함과 나무와 숲의 푸르름이 좋다. 겨울의 으슬으슬함과 초록의 나뭇잎 하나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별로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왔다. 그렇다면 즐겨야지. 해서 지금부터 겨울의 장점들을 찾아보려 한다. 일단 올해 여름이 무던히도 길고 더웠기에 선선한 가을이 기다려졌다. 겨울도 가을보다 조금 더 추울 뿐이겠지.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맛있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음식과 음악이다. 먼저 추운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길거리 간식들. 봉어빵, 달걀빵, 어묵꼬치. 봉세권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봉어빵을 파는 가게를 보면 반갑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꼬치에 국물 한 국자 떠서 먹으면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 각종 국물 요리들이 뜨끈하게 깊이를 더한다. 생태탕, 수제비, 칼국수, 굴국밥. 확실히 점심시간 일터에서 나와 칼바람 맞으며 식당에 갈 땀 축지만 국물 요리로 든든히 배를 채우면 돌아오는 길은 축지 않다.

음악 또한 한 여름의 댄스곡도 좋지만 추운 겨울에 듣는 애절한 발

라드는 달팽이관과 더불어 내 마음속 한구석을 녹인다. 광석이 형, 이문세 DJ, 김필 추천. 고막 핫팩들이다. 거기에 12월이 지나면 그 맛이 안 나는 캐럴도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따뜻한 실내에서 바라보며 혹은 가로등 밑에서 눈을 맞으며 듣는 캐럴은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12월 이야기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12월 크리스마스. 솔직히 1, 2, 3월 겨울은 그냥 강추위라면 12월 겨울은 리미티드 에디션. 사십 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년 맛있는 크리스마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설렌다. 젊었을 땐 친구나 연인끼리 결혼 후엔 가족끼리 사랑과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날. 퐁퐁 언 겨울 한가운데지만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에게 크든 작든 나의 따뜻한 마음을 산타처럼 나눌 수 있다.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머라이어 캐리 누님과 늙지 않는 케빈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이 둘은 아마 내 평생 크리스마스마다 함께하겠지. 아직까지 대체재가 없다.

빨강과 초록은 서로 다른 보색이지만 크리스마스엔 서로를 더 빛내 주는 색상들. 평소에 잘 안 맞는 주변 지인들과도 빨강과 초록처럼 서로를 축복해 주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이 글을 읽는 우리 당당이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렇게 적고 보니 나 겨울 좋아했네.

기업은행이니까 유연도 믿고 맡깁니다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과 기업 곁을 지켜 온
IBK기업은행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알기에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유산까지
맡기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상속으로 내 뜻을 지켜주는
IBK 내똥대로 유언대용신탁



믿을 수 있는 국책은행

63년 역사의 국책은행으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약관리



내똥대로 상속설계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간편한 신탁계약

형식이 엄격한 유언장 대신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사 효과



안정적인 상속집행

신탁 전문가와 함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속 집행

기업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5979호(2024.10.15) 유효기간(2025.10.1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197호(2024.10.16~2025.10.15)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BK 내똥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점심 메뉴는?

오늘은 뭐 입자?

회의 준비는 했나?

노후 계획까지..?

고민도 할 일도 많은 당신을 위해
연금을 쉽고 간편하게!
기업을 아는 만큼 직장인도 잘 아는
IBK기업은행이니까

**쉽게 시작하는
IBK IRP**



직장인을 잘 아는 기업은행의 IRP!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국책은행의
안정적인 연금 운용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안전한 국책은행



디지털 테크를 활용한
고객 친화적 서비스

시장 상황과 고객 성향에 맞는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추천·관리 서비스

준법감시인심의를필(제2024-6357호(2024.10.23))유효기간(2025.10.28)※자세한문의는거래영입점 또는고객센터(02)1566-2555로문의※개인회생절차에서운용하는금융투자상품은연금자보유법에따라보호되지않습니다.※개인회생절차수정시세액공제받은납입원금및수수료에대해가타스드세(16.5%)부과후과세가종 및과세변환항목변동가능※금융상품관련계약은제결하기전에상품서비스설명서및약관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일일금융소비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3조제1항에따라IBK기업은행으로부터충분히설명받을권리가있으며,그설명을이해한후거래하시기바랍니다.